

제41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5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 간사 선임의 건(추가)
-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추가)
-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추가)
- 현안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추가)
-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2. 간사 선임의 건	8
o 간사(최형두) 인사	9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3.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4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3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38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9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91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9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99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6
5.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26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1
6. 현안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3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31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7

7.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57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을 위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비로소 완전체로 출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분야의 법률안·예산안 및 다양한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법률안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2대 국회 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방송 현안 등이 쟁점화되면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자유와 관련된 방송 현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분야, 원자력 등등 중요한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의견을 극복하고 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부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부터 돌까요?

왼쪽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그리고 지금은 다시 AI·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국회가 바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회, 유럽의회 그리고 일본의 의회들, 심지어 중국조차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국가를 다시 도약의 토대에 올릴 것인가, 그 치열한 경쟁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중심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초당파적 그런 국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정작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경쟁으로 번지고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에서 확립해서 지난 이십몇 년간 해 왔던 국회의 협치와 원칙과 전통이 무너진 그 참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김장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말을 할 시간을 안 뺏기 위하여 죽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언론 자유 확대와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콘텐츠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방송 생태계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고 또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선 직후부터 과방위를 희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에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등원 첫날에 22대 국회의 2호·3호 법안으로 이공계 특별법 개정안과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지원법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국가 이익, 그러니까 정당과 정파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논의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량 상임위원회’ 소리를 좀 언론에서 안 들었으면…… 듣는 것이 제가 좀 부끄러운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그늘에 묻힌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저 역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휘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필 왼쪽부터 돌아가서…… 오른쪽부터 돌아가셔도 되는데.

반갑습니다. 포항남 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뵙던 분들 다 계시니까 참 정감 가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꼭 만날 사람은 만나는 법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an's Agreement)가 지켜지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재단하는 사회는 참 원시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결국 관습이니 이런 얘기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신사협정으로서 또는 생각으로서 또는 법을 초월하는 어떤 마음으로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기술·방송 이 분야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서로의 약속과 신뢰를 의지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저는 산업체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현안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이 상임위에 온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과학과 미래 성장동력인 침단산업을 위해 정부나 국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역시 22대 첫 번째 법안으로 R&D 지원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 ICT,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국가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원자력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생태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난 11일과 14일에 여야 원 구성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방송 3법까지 가결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방송 3법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한 국회의 합의적인 정신을 무시하고 속전 속결로 급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과 배려를 하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여야 간에 건강한 정책 대결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황정아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지난번에 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이렇게 저

희 위원회가 다 구성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앞으로 일할 것에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면면을 보아 하니 저희가 방송국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진행자로, 패널로 맹활약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같이 방송할 때도 그랬듯이 강호의 도리라는 것이 앞에 마이크 켜졌을 때는 치열하게 그리고 또 껴진 다음에는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과방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학 한국 대한민국의 당연히 수도가 돼야 될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앞에 앉아 계셔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과,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에 대한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구을 한민수 위원입니다.

앞에 저와 절친하신 선배들도 계시고 환영합니다. 5월 30일 개원돼서 벌써 6월 25일이니까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6월 넘기지 않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야가 차이가 있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또 조율해 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대화 나누고 해서 의견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만큼—다른 위원회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미래나 현재는 물론이고 중요한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 역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지혜를 잘 모아서 정말로 22대 때 우리 과방위가 가장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와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고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서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와 주셔서 같이 논의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정부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야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방위가 언론도 중요하지만 과학 또 ICT, 인공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첨단 분야를 다루는데 균형도 맞추고 생산적으로 운영됐으면 하고, 또 여야가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잘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어제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듭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소방과 구조, 경찰대원분들께서는 꼭 안전하게 임무를 다해 주십시오. 당국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사고 수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참사는 리튬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도 사고 수습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시지탄(晚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일하는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관장들께서는 다시는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기관장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시 관악구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협치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2003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21년간 국회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들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와 함께 국정을 같이 논의할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 및 간부 여러분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면 위원 좋은 말씀들 앞에서 다 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가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 비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것이 현실을 덮고 외면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영 위원** 은평을 김우영입니다.

여야 위원들이 이제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서 그 시대의 하나의 진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역대 가장 난세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놨는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비이성적인 충동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방송이나 언론과 같은 국민의 도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고 어떤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국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송과 언론 또 우리가 스스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정권이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 잘 경청했고요.

저는 이번에 국회에 8년 만에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제 머릿속에 항상 잊지 않고 이를 우선해서 하겠다는 약속은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요.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야당 위원들도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첨단기술이 뒤쳐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사실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균형감 있게 다루되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정치,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인데 1·2·3·4차에 여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국회법 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야당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5차부터 시작한 이 회의가 온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야당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당의 간사가 뽑혀지면 간사 간의 협의를 충실히 해서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현안과,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침 도착하신 이해민 위원님 인사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오늘부터 함께하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매우 넓고도 깊습니다. 바라건대 국민의힘 위원님들 각각 개개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돼서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과방위만큼은 건설적인 토론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당시 MB정부 관계자의 언론 길들이기 고리를 직접 끊으실 수 있는, 결자해지하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손에 가지게 되셨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이 상임위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쟁을 떠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이 상임위에서 현실화하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이십니다.

서덕교 입법심의관님이십니다.

(인사)

그 밖의 직원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하도록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6월 18일 날 정부 측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가 중인 채택이라는 형식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중인 채택을 하지 않고 그냥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으로서도 만나고 싶다는 인사말을 하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최민희** 당초 오늘 회의에는 이 안건이 없었는데요.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간사 외에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형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최형두) 인사

(14시29분)

○**위원장 최민희** 간사로 선임되신 최형두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야당 위원님들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지요? 저희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전통을 보면 1988년 이래로 야당 위원님들의 전신들이 국회를 구성할 때 훨씬 더 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 위원님도 배려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6월 중에 원내에 복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을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이야 이미 지금 K-콘텐츠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영역도 이제는 지상파, 케이블을 떠나서 OTT까지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문체위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많은 경우 방송의 현안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의 소위에서 적절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말 나라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22대 전반기에서 만들어 놓은 중요한 입법과 이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과학기술 강국으로 또 우주 강국으로 또 통신 강국으로 또 원자력 강국으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정말 참 겁도 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 쟁쟁한 면모도 그렇지만 이 엄청난 과제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과제가 혹여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덮여서 혹시나 또다시 외면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경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을 연초에 우주항공청법이 간신히 통과되어서 경남에 마침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세우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방통위가 바로 방송의 방송법 이슈에 매몰되어서 그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지체시켰다는 오점을 21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는 삼각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전남의 발사기지와 대전의 연구, 다음에 경남의 우주발사체 종합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정말 21대의 그런 실패가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또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과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3항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 현안질의 관련하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여덟 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최형두 위원 어쨌든 새롭게 여당 위원들이 오늘 구성이 되었고 또 여당 간사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런 사안, 오늘부터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고 또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당면한 국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그리고 이 과제를 함께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소위를 구성하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는 지금 이렇게, 우리만 해도 벌써 20여 명이 되어서 질의 시간 5분도 안 되고 그러면 답변 시간 듣기도 힘들고, 이게 그냥 5분짜리 쇼츠(shorts)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대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회 전체회의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간사님과 함께 또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는 국회에서 새로운 면모, 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깊고 장시간의 논의를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의사일정 전체를……

지금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조금 전에 그냥 통과시킨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그건 오늘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을 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에 여야 간사가 위원장님과 다시 만나서 소위 구성, 특히 지난번에 중요한 법안 몇 개를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반드시 거치기로 한 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이미 지나가는 버스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회의 법안처리에 중대한 결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간사님들끼리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 위원들이 함께 당면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보고받고 또 그 직후에 김현 간사님과 제가 위원장님과 만나서 소위 구성과 중요한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민희 말씀 들었고요.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지금 제가 앞서서 1차에서부터 4차가 진행됐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이 증인 신청은 지난번에 저희가 4차 회의 때 나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는 오늘 5차 회의에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7월 2일 날…… 지금 저희가 매월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법에 맞춰서 7월 2일 날 출석해야지만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회의를, 마지막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7월 2일이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지금 채택하지 않으면 7월 2일 날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해야 되는 증인 출석 요구서는 하고요.

혹시 만약에 여당에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진행하면서 잠깐 간사들 논의해서 또 의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이라.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상정된 의결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7월 2일 날 잡은 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인가요?

○황정아 위원 네이버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네이버가 대책을 내놔야 될 마지막 날, 마감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인 7월 2일이 그 중요한 현안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원래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날 저희 상임위를 열도록 저희가 의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의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증인 하실 것 있으면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이 잠깐 나가셔서 추가 증인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실과 의논해서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이게 맞는 말, 그러니까 저도 오랜간만에 왔습니다만 이게 야당 위원들만 계신 상태에서는, 저는 매주 회의 날짜를 잡으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 측 사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복귀를 했고,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현안질의 준비는커녕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은 업무보고만, 현안보고만 받고 우리한테 좀 준비할 기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인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어찌 됐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라인야후라는 것 외에는 원자력안전위, 지질연구원, 스테이지파이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몰라요.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선임이 됐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오늘 현안보고만 받고, 야당 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만,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위원장으로서 마땅한 처사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저희는 의사일정을 잡아 왔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로 명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목 오전 10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앞으로 국회법에 따라 이 날짜에 으레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상임위, 여기 배정된 위원님들 일당백 아니십니까? 현안 파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더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분 계십니까?

이제 두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쪽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현 위원님 드리고 이상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기관장들께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시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다 준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5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20여 명이 질의하고 답변까지 듣는 데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5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7분, 5분, 3분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위원장님의 시간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장들께서 오늘 많이들 준비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 회의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끼리만 논의해서 결정한 것들이 아니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또 조국당에서도 그렇고 다 참여하셨었고 이미 공지가 됐던 그런

회의 일정입니다.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시고 토론 종료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 얘기 듣고 종료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인사말씀 들어서 참 기대가 많습니다마는 그 인사말씀대로 한 부분들이 한 10분의 1이라도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성범 선배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초선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아마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정치적 쟁점화돼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그동안 개원이 되지 못한 부분들, 찬반의 양론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가불가하고 논쟁이 돼 있는 시점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께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가적 과제, 국가적 중대사를 이야기하는 이상임위가 한쪽은 지금 급하게 링에 올라온 상태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약간의 여유를 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시쳇말로 ‘그것은 너희 사정’이고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신사협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상임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날카롭게 자꾸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집권 여당인데 현안에 대한 어떤 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도 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우리가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좀 박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3·4차,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데, 이것이 여당 책임이다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다 아십니다. 이게 왜 지금 파행이 됐고 이렇게 된 것……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가지고 또 논의하기 시작하면 현안보고가 아니라, 질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 그러면 좀 시간적인 여유, 저희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안보고 받고 돌려보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 중대사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적 사안들 이야기 좀 듣고 우리도 좀 생각하고 여유 갖고 이게 문제가 뭔지 또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게 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 좀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토론이 종결된 건 아니지요,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숫자 맞춰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네 사정이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다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안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점검해 주길 바라실 거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라인 사태, 너무 시급한 것 말 뒷불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국회 원안위원회 출석 요구하는 것도 월성원전 누출사고 관련된 현안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이런 현안질의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현 위원 의사진행 관련인데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위원장 최민희 넣어 주세요.

○김현 위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약속을 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동료 위원의 발언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함께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각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논쟁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차이, 차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뽑아 준 국민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됩니다. 헌법 정신의 혼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지는 말자 그리고 거론하면서, 거명하면서,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격앙되더라도 동료 위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발언은 좀 지양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잘 들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께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은 드려야겠지요.

○최형두 위원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먼저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제가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 말씀 정말 옳습니다. 정말 찬성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거명하면서 평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다 구성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소위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소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몇 개 법안을 고속 처리를 하셔 가지고 법사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논의할 사안들을……

우리가 지금 여당, 야당 해서 모두 스무 분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다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서는 소위로 이렇게 좀 더 집중 토론하게 돼 있

고요. 모든 분들이 여기서 5분씩, 7분씩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은 우리 김현 간사님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협의를 받아 주신다면 전체적인 양상을 듣고 그러고 나서 김현 간사님과 제가 소위 구성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소위 구성을 마치고 바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요—구체적인 현안질의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질의는 소위 구성 뒤에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김현 위원 소위 구성은 다음 6차 회의에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양해하자는 건……

○김현 위원 진행하는 걸로 의사일정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은 오늘대로……

○최형두 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서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현 위원 다음 주…… 왜냐하면요, 소위 구성이 저희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안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고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하고 그 소위를 어떻게 구성할까를 가지고 통과하고 하기에는 안 맞으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요, 지금 정회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다음 회의 때 하시고요. 오늘은……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양해하냐고 여쭤본 것은……

○김현 위원 양해 안 되지요.

○위원장 최민희 양해 안 한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준석 위원님께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네 번, 오늘 다섯 번째인데 상임위 출석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보다 가끔은 더 먼저 가서 출석을 해 왔는데요. 오늘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을 했냐면……

(책을 들어 보이며)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회를 진즉에 개최를 잡아 놓었습니다. 시간이 겹쳤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7월 1일입니다. 라인야후는 현재 이사회 전원이 일본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저희 정부에 7월 1일 전에 촉구를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촉구를 하고자 오늘을 지금 기다렸고, 제가 지각을 하면서 토론회는 열고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상황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 회의가 열림에 있어서 아마 의원실에서도 보좌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귀한 걸음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현안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토론을 종결하고 현안질의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의결하자, 찬성하는 입장이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세 주시지요.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준석 위원님 기권?

○이준석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기권 인정합니다.

현안질의 중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현안질의 중인 출석요구의 건은……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지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 절차가 무시되어 있다는 것을,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위원장 최민희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찬반 구도로 자꾸 몰고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중대 사항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데 그것을 표결로 해서……

○위원장 최민희 여러분, 우리가 표결이 진행되면 토론할 수 없습니다. 김현 간사님도 가만히 계시고요. 표결이 진행될 때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열두 분 확인되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더 추가 증인 요구할 수 있지요?

○위원장 최민희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반대 표명하시겠습니까? 기록에 남으니까요.

○신성범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최형두 위원** 그러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에 반대합니다.

○**박정훈 위원**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민희**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안건인데, 여당 위원들이 들어온 첫 번째 안건인데 얼마든지 중인 문제는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찬성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굳이 이렇게 반대하실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 이렇게 됩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4시58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는 좀 심층적으로 다시 소위 구성 뒤에 하자는 간사 간 협의를 허용해 주십시오. 사전에……

○**위원장 최민희** 협의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좀, 발언권을 얻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걸로. 그런데 일단은 좀 진행하고 중간에 정회했을 때……

○**위원장 최민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두 분이 나가서 협의하십시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증인들의 현안보고를 받은 후 그런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열두 분의 증인과 다섯 분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양해확인서라는 걸 과방위에 보내 왔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불출석을 저런 이유로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

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그다음 날 KBS는 7월 8일부터 11일을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주간으로 공지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항까지 뒤로 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뺨과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 저부터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이후…… 지금 몇 시지요?

○김현 위원 3시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3시 반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께 3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회의 진행이라는 게, 회의라는 게 말로 하는 것이 회의인데 말을 가로막는 게 회의 진행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십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십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십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십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이십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십니다.

(인사)

참고인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유진 방심위원은 방심위 회의 일정 등으로 인해 오후 3시 30분에 회의장에 출석하시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이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최선영 교수님이 불출석 하셨습니다. 이분은 해외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서 불출석한 거라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분이 국회 추천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곧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께서 위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이분이 결국 어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을 받은 자신을 심의 위원에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헌법소원입니다. 오늘 비록 본인에게 직접 그 역울함을 들을 기회는 없지만 우리 과방위는 그분이 당한 부당한 처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방위원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호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증인 이종호

증인 이창윤

증인 강도현

증인 류광준

증인 김홍일

증인 이상인

증인 조성은

증인 이현

증인 이우일

증인 류희림

증인 김유열

○**위원장 최민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을 보고받고 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십니다. 요약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쪽입니다.

R&D 시스템 개편 및 25년 예산 배분·조정 방향입니다.

24년도 정부 R&D 예산은 총 26.5조 원입니다. 그간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젊은 과학자 지원, 글로벌 R&D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방, 안전과 같이 필수적인 임무 분야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R&D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원 시스템의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R&D 예타 폐지와 함께 대형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평가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확실성은 높지만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 R&D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정부 R&D 체질 개선 노력하에 미래로의 큰 도약을 위한 25년 R&D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도전적 R&D,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지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학생연구원과 젊은 연구자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재정당국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선도형 R&D 전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R&D 시스템 개선을 완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과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방안 수립 및 이행입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R&D 예타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R&D 예타 폐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R&D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의 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원천 등 연구형 R&D는 사전에 전문검토를 실시하고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 사업 등은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예타 폐지 이후 모든 R&D 사업은 각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특정 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R&D 예타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재정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까지는 예타 면제, 신속조사 등을 활용하여 R&D가 적시에 착수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타 폐지를 통한 첨단 연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발생한 라인야후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 행정지도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 왔으며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 행정지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통령실 또한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였고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7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 내용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증인 이종호 7쪽,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추진입니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대통령실 브리핑하고 정부 향후 입장·계획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멈추십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상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십시오.

최대한 요약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우리 위원회가 무슨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것 뭐 말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협의, 대화를……

○위원장 최민희 진행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예.

○이상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진행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현안보고를 충실히 듣고 해야지요, 위원장님.

○이상휘 위원 왜 보고하는데 보고 스톱하고 넘어갑니까?

○김장겸 위원 무슨 크로마뇽인 시대입니까, 네안데르탈인 시대입니까? 이것 왜 이래요?

○위원장 최민희 진행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이후 주파수 할당 마지막 단계인 필요사항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신청 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으로 투자자,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복수의 법률 검토 결과 자본금 2050억 원이 납입되었음을 필요서류 제출 시 확인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테이지엑스의 현재 자본금은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필요사항 미이행에 해당하고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도 크게 변동되어 서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향후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정원 확대로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우려에 따라 우리 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이공계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TF 운영을 통해 신진연구자, 대학생·대학원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공계 인재가 산학연 다양한 경력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는 인력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공계의 유입·양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공계 인재의 연구 분야, 성장 경로, 처우 등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최대한 요약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가셔서…… 간사님 두 분 빨리 나가세요. 둘이 서로 왜 이러십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좀…… 이게 지금 정부 보고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현안보고를 듣고 정회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빨리 나가십시오. 야당 간사가 얘기하자고 할 때 나가서 협의하고 오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주요 정책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방통위는 금년 12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허가 심사를 위해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입니다.

작년 11월 주식회사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금년 2월 방송법에 의거하여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승인 조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3월 YTN 방송 재승인 의결 시에도 보도 개입 금지와 YTN 투자계획 이행 등 연계 조건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변경승인 조건과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입니다.

작년 7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KBS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체적인 징수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의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등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나오셨나요? 참고인 나와 계신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참고인 김유진 위원 나오셨나요?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빨언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권태선 위원님 나오셨나요?

○이상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빨언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참고인 두 명이 출석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위원 나오셨고 권태선 이사장,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 참고인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혹시 따로 하실 분 의사 를 표현해 주십시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입니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7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분들은 7분 참고인에게 쓰실지, 그리고 본질의를 이어서 12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는 참고인 먼저 하시면 제일 뒤로 밀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해 갑시다, 좀.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이상휘 위원** 오래간만에 뵈니까 참 반갑기는 한데……

2분, 알겠습니다.

반갑기는 반갑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민 사장의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런 말씀들은 본인의 주관적 견해인 관계로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사장인데 글쎄요, 박민 사장이 참석해서 견마지로를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국가적 이익을 책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변해야 되는 입장의 방송이 저출산 관련해서 특집방송을 만들었다 거기서…… 글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임위 진행함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과학기술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정부의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끊으시고 넘어간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게, 이 부분 제가 듣고 싶어요.

정보통신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국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어떤지……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유달리. 요약하게 보고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정부가 방어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인데 정부의 방침을 이야기를 우리가 현안보고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장관께서는 정부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까?

황정아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최민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요구 발언 요청드립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국가기밀일지라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하고 과방위가 적법하게 의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안들이 과기부의 불법적인 행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과방위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법률 자문 의뢰서와 결과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각 실·국에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문자 실·국별 소통을 통해서 의뢰서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고요, 몇몇 실·국에서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문자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기부 공직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거부한 불법적 직권남용 행태로 보이고요. 특히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서 중에 과기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징계 의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누리호와 다누리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반발했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9월 4일부터 200여 일간 과기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현직 노조 간부와 연구원 실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표적감사를 위한 짜맞추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근거로 법률을 해석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담당관실이.....

1분만.....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추가 시간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말씀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 중에서 법률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2023년 12월 5일 ‘노무홍익법인’에 의뢰한 노동 분야 법률 자문결과서부터 2024년 5월 13일 ‘법무법인 인’에 의뢰한 단체협약 등 해석에 관한 자문 결과서 제출을 과기부장관에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과기부장관에게 법률 자문 결과서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과 과기부 공직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황정아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에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시간에 화면에 띄워서 국민 전체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이 부분 아까 읽으셨던 거거든요.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꼭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화면으로 띄워 드리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3년 11월 29일 YTN 매각 관련 회의자료 일체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자료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국회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님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법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 관계가 있을 때는 발언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신 김장겸 위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 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하셨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입니다.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문진이 과방위의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장겸 위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장겸 위원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좀.

○**위원장 최민희** 우선 간사님, 지금 거론된 위원님께서 혹시 먼저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장겸 위원 우리 간사님……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께 위임하시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아니, 아니요. 위임 아니고 간사님 말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순서상 그러면 또 김현 간사님이 나서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그러면 김현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우선 저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특정 위원님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특정 위원님 말씀을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현 간사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김장겸 위원 위원장님, 무슨 뭐……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장겸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민희 먼저 말씀하십시오.

2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제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어떻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그건 판단은 뭐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위원회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 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역시 그게 시즌 2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것을 보면 그 완결을 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간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지 참 암담한데요. 뭐 그래도 밀어붙일 것 같네요.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잠시 생각 좀 해 보고요. 잠시만요.

좀 소화를 해야 돼서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김현 간사가 아까 회의 모두에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우리 과방위는 좀 다르겠구나 생각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두 윤리심사위원회에 따라서 모든 경력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야당 위원님들은 안 받으셨나 본데, 윤리심사위원회 통보 안 받으셨습니까? 이해 상충이 있으면 어느 상임위 가지 말라고 미리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안내에 따라서 그런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여기 방송에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

니까? 소송 안 했습니까?

저도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김현 간사가 서로 핑거 포인트하지 말자, 거명하지 말자 그랬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과거에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다, 이건 심각한 모독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훈기 위원님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동안 사과 좀 해주십시오. 사과를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이훈기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야 말로 여야 간사가 나가서 어떻게 할지 의논해 주시고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정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정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니, 위원장님이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간사님.

○최형두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당 위원이 모욕을 당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께서 좀 아까 저를 모욕한 것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까요?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기……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이 문제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간사 두 분……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마이크 안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아까 마이크 2분 쓰셨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1분 20초 쓰셨거든요. 1분 20초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제가 40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회의를 못 합니다. 우리라고 지금 한 분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현 간사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쟁을 벌이지 말고, 인신공격 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해서 초당파적 지혜를 모아 보자고 시작한 회의인데 첫 회의에서, 국회가 당연히 심사해서 상임위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 허용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장께서는 이 상임위 배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훈기 위원의 사과와 위원장님의 명백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기다리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끼리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 **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위원은 각자의 발언할 권리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고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했던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는 직업의 문제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회피의무 제1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전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회피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추후에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거고,김장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적한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토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또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권위 또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삼가야 된다고 하고 회의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여기서 끊어 주십시오.

○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의원윤리규정을 그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따질 게 한두 가지인지 압니까?

○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간사 두 분 나가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만하십시오.

○ **최형두 위원** 저희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숙의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하십시오.

○ **최형두 위원** 이렇게 해서 의원의 권한도 없이 의원이 야당 상임위, 정당하게 우리 원내대표의 추천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배정에 따라서 상임위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배척한다면 저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 **최형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우리가 다 할 말이 없습니까?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만일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안 받아들이시면 저희 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심각하게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중재안을 낼게요.

최형두 간사님이 김장겸 위원님에 대한 이훈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이 정회할 사안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일 김장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재명 대표까지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아버지 발언, 그것 판단은 다르지요. 저도 아마 김장겸 위원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하여. 거기에 빗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빌미로 제가 화를 내고 정회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두 분께서 최형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그만 받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 1번이세요.

○**최형두 위원** 우리 여당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위원장 최민희**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잠깐 이석해서 좀 협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 달 만에 들어오셨는데 앉아 계세요. 일하셔야지요.

○**이상휘 위원** 아니, 첫날부터 이러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박정훈 위원** 지금 법사위에서도 재판받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한민수 위원** 나가서 간사들끼리 상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위원**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회의를 안 하시겠다고, 저희 여당을 대놓고 무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거잖아요.

○**최형두 위원** 저희들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국회법에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간도 2시간 다 돼 갑니다.

○**박정훈 위원** 저희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면 뭐가 안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여기 판결문을 읽어 드릴까요,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박정훈 위원** 그건 재판이 다 안 끝난 것 아니에요?

○**이훈기 위원** 지금 이렇게 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지금 회의가 시작하고, 우리가 2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김장겸 위원** 판결문대로 한다면 최민희 위원장은 판결 안 받았습니까? 유죄 안 받았어요?

○**최형두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격앙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러분……

○**최형두 위원** 정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노종면 위원은 유죄 안 받았어? 전과 한번 합해 볼까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여기에서 삿대질하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정회하고 간사끼리 이 문제는 협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희들 좀 협의하고,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자, 나오십시오.

이렇게 편파적인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현령비현령이고.

(일부 위원 퇴장)

○노종면 위원 자료 미제출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최민희 마침 노종면 위원님께서 첫 질의십니다. 첫 질의 시작하시면서 앞부분에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간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저희 쪽 자료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먼저 이준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요구했던, 사실 지난 청문회의 핵심 논의사항 중의 하나가 과연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반대의견들이 개진될 여지가 있었느냐를 살폈는데요. 그런데 그것의 근거를 위해서 사전 간담회 운영 근거와 그리고 실시 관련 법령 그리고 사전 간담회 실시 내역 그리고 간담회 결과 자료 그리고 간담회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고 오늘도 후속 질의가 있어야 될 사안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료에 대해 가지고 신속 제출을, 일부라도 신속 제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성은 처장이 방통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사전 간담회 혹은 보고 과정에서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님께서 그 사전 간담회 혹은 보고 과정에서 조율된 이메일, 카톡, 관련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회의 진행되는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처장,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습니까?

○증인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그 사전 간담회 관련하여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이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노종면입니다.

지난 21일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 명칭까지 열거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김홍일 방통위원장께서 수차례 직접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증 고발이 된다는 점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예 없다는 자료 빼고 모두 8건을 요구했고요. 중요 자료 4건이 미제출됐습니다. 유진의 YTN 인수신청 서류, 심사 관련 자료들을 통째로 뺏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유진의 영업상 비밀이 담겼다 이게 거부 사유인데 법률 전문가 방통위에 없습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도 제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 4건도 방통위 속기록, 공문에 관련된 붙임자료 등 중요한 것들은 모두 빼져 있습니다. 껌데기만 제출한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기망행위고 이는 방통위원장 위증 그리고 또 국회 증감법 4조의2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관련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제출된 자료 일체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올 1월에 가동된 자문위원회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보류 의결 전후로 유진 쪽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보정·보완 자료들, 투자 계획 이런 추가 자료 일체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지금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그것은 저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님, 지금 노종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꼼꼼하게 챙겨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실에서도 저 목록 즉 작성해서 제가 말미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김현 위원님께서,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끝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한국방송공사 박민 사장이 3시 30분까지 국회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협력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파악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시 반이 지난 지 15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박민 사장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 또한 의결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행정실에서 정리해서 회의 말미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누구에게 질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볼일을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보류 의결입니다. 방통위가 스스로 의결한 이 확인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진이 매각 승인 신청을 하고 보류 결정이 나기까지 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그 기간이 단 4일입니다,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그리고 보류 결정이 난 뒤에는 심사위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를 대신 열었고 이 자문위의 가동 기간도 단 7일입니다. 심사와 자문위 다 합쳐서 11일, 이걸로 공적 방송인 보도전문채널을 매각해 버린 셈인데요. 그래도 될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 전문가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김홍일 이……

○노종면 위원 전문가 아니시지요?

촬영 중인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좀 더 이어 갈 텐데요. 김홍일 증인 그리고 옆에 계신 이상인 부위원장의 표정을 좀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니까 증인들께서는 중간에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트 하나 허가받는 데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서너 달, 길게는 이삼 년도 걸립니다. 직원들 수백 명이 피땀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 가면서 지키고 키워 온 방송사 이렇게 팔아 치워도 되는 겁니까? 적자에 허덕이던 상태도 아니었고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팔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회사를 단 나흘 심사하고, 자문 기간까지 합쳐도 11일입니다. 시늉만 하고 매각해 버렸습니다. 모든 게 비정상인데 당당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질문드립니다.

유진이 YTN에 제시한 운영계획과 약속들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증인 김홍일 지켜야 됩니다.

○노종면 위원 지켜야 되지요?

유진이 엔티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보류 의결을 할 때 방통위가 공표한 내용입니다.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 유진이 말한 기존 제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사장공모제, 공정방송협약 등입니다.

짧게 운영된 심사위와 자문위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이 마련한 고용안정협약, 공정방송협약, 고용안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유진이 엔티가 존중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 확약을 받고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회의 입장도 방통위 문건에 나옵니다. '사장 선임제도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YTN 김백 사장 사장공모제로 뽑았습니까? 아니지요? 보도국장 바꿨던데 임면동의제 거쳤습니까? 안 했지요? 증인은 이런 제도가 방송 공정성과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실 의향 없지요? 없지요?

이상인 부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 맞습니까?

○증인 이상인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회피제도가 됩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판단, 의결할 때 빼져야 된다는 거지요?

증인은 유진 사주인 유경선 회장의 변호사였던 적 있습니까?

○증인 이상인 한 10년 전에 형사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검찰에 뇌물을 준 사건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유죄가 됐고?

○**증인 이상인** 배임증재 사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스스로 회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상인** 저는 변호사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그중의 한 당사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전혀 공정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주 검찰 뇌물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그 사주가 인수하고 싶은 방송사 매각 승인 과정에 참여한 것이 당당하다 그 뜻인가요?

○**증인 이상인** 저는 공정하게 다 업무에 임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현재 현안질의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15시52분)

○**위원장 최민희**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 입장)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 국민의 힘 간사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숙고를 위해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매우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어떤 분은……

○**위원장 최민희** 저기, 마이크 끄십시오.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끄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 아니, 간사가 이야기하는데 왜 마이크를 끄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최민희** 제 말 들어 보십시오.

○**박정훈 위원** 회의를, 위원장 혼자 얘기하려고 회의를 합니까?

○**최형두 위원** 저도 여러 상임위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말하라는 것만 말해야 되나요?

○**위원장 최민희** 안건조정……

○**최형두 위원** 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하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 절차……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김현 위원**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지금 어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하면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그것이 합당한 이유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일방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진행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저희가 상정한 박민 증인에 대한 국회 증감법에 따른 불출석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로부터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끝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성…… 이것은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결하자고 위원장이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냐,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편파적인 의사진행이고, 어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증인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발하신다고 하는 것은 심히 형평에 어긋난 것이고 똑같은 불출석 증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간사님, 제가 발언 중에 있었고요. 지금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간사님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최형두 간사님처럼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겹치잖아요. 말이 겹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는 고발의 건 상정을……

○위원장 최민희 이게 안건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현 위원 아니다라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위원장 최민희 예, 그것 알아들었고요.

○김현 위원 그러고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중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발언 신청할 기회 없습니다. 찬반만 의견 표시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아니, 발언을 왜 못 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 지금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중인데 최형 두 간사님이……

○신성범 위원 찬반토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이것 안 들으셨어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행정실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검토하겠습니다, 의사국이랑.

○위원장 최민희 검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신성범 위원 아니, 이의……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절차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신성범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발언 신청을 하는데 왜 무시하고 지나 갑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이 안건은 오늘 의결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안건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최소한의 판단을 하고……

○신성범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이야기를 못 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최소한의……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기다리 십시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건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고발 건이라면서요? 그에 대해서 찬반……

○위원장 최민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요 하나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찬반 의견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기다리세요. 혼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최형두 위원 아니, 말씀을 못 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최민희 성격이 우리가…… 제가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제가 성질이 좀 급 하긴 한데……

○김현 위원 제가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김현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위원장 최민희 지금 과방위 행정실에서 확인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확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민희 우선 그러면 신성범 위원님 반대의견 내십시오.

2분 드리십시오.

○신성범 위원 아니, 안건조정위라는 게 57조의2에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뭐가 해석이 필요한가요?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 회사 출신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KBS 사장은 계속해서 국정감사할 때 나오지요, 결산 때 나오지요,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와서 하는데 야당 위원들만 계실 때 증감법에 의해서 증인 신청해 놓고 안 나오니까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겠다 하고, 그게 처벌은 굉장히 엄한 법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위원장 최민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신성범 위원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KBS 사장은 역대로 보더라도 적어도 현안질의 때 나온 적은 없어요. 다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출석한 게 사실이고, 심지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양승동 사장도 현안질의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지난번 회의에 참석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반대의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안건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1·2·3소위, 예산소위 그다음에 청문소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나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소위가 구성도 안 돼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안건 중에 의결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소위를 구성하고 이건 미래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유가 이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말씀은 김현 간사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소위부터 구성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1분 드리십시오.

○최형두 위원 소위부터 구성하자고 했을 때는 다음에 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 그래서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하자니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고 법조문을, 이것을 저렇게 저렇게 편리하게 해석하시는데 아까 김장겸 위원에 대한 그런 명백한 인신 모독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도덕적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다를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급히,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불출석 등의 죄로 중인 문제를 고발하신다고 해서 급히 들어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이훈기 위원님이 하신 인신 모독과 동료 위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은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 아래야 이 문제 재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장이 6월 5일 날 해당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행정실, 결론이 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 안건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건의 의결은 보류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박정훈 위원 아직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일단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을 현안질의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지요.

○박정훈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기회 주셨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게 의사진행발언 전이었고 지금 간사님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상희 위원도 발언 기회 주셨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건 아직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순서 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6시05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질의입니다. 5분입니다.

○김장겸 위원 현안질의에 앞서 아까 이훈기 위원이 저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자격을 문제 삼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다고 그동안 제출한 것에 따라서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저희 보좌진이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7년 방문진 이사회가 저를 MBC 사장에서 강제로 해임할 때, 이훈기 위원이 판결 내용을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의혹 단계에서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판결로써 사후 보완한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위원님들의 자격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노종면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위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네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은 공동폭행·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이정현 위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아니 기소도 되기 전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저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정현 위원님 같은 분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과 4번의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원내 제1당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똑바로 해요, 좀!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위원님들. 김우영 위원님.

중단해 주세요.

○김장겸 위원 MBC 등을 상대로 한 저의 민사소송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비록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나 그것이……

○최형두 위원 발언시간 아닙니까, 발언시간.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꺼 주세요.

○김장겸 위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행한 방송 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끄세요.

○최형두 위원 어떤 근거로 마이크를 끊니까?

○김장겸 위원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편향 보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꺼 주세요.

○김장겸 위원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타이머를 스톱시켰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김장겸 위원 최민희 위원장님, 2018년 혀위사실 유포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 자리는 지금 방통위와 과방위에 대해서 현안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훈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저도 깊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이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앞부분의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현안질의 다시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2분 47초 남았는데요.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게 중요한 현안이지요. 상임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이 현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건 현안 아닙니다, 간사님.

하십시오. 현안질의하십시오.

현안질의의 대상은 동료 위원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그런 말씀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야당 위원님들도 똑같이.

2분 47초에서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2분 47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3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초 단위가 안 된답니다. 3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이종호 과기부장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이지요? 올해군요. R&D 예산 삭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장관님이 그동안 여러 번 국회에서 아마 이런 걸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증인 이종호 지난해 국감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연구 그리고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는 분야 그리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분야에 써야 한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R&D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적된 비효율이 있었고 또한 낭비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걷어내고 선도형 R&D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정부 R&D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을 말씀하신 거지요?

○증인 이종호 예, 큰 방향과 대략적인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게 수혜기업 확대 중심의 기업 R&D 이런 내용이지요?

○증인 이종호 수혜기업?

○김장겸 위원 예. 그러니까 수혜기업은 숫자가.....

○증인 이종호 아, 수요기업.

○김장겸 위원 수혜, 혜택을 받는다는. 그건 어떻습니까? 좀 들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증인 이종호 25년 예산에 말씀인가요?

○김장겸 위원 예.

○증인 이종호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로 큰 폭으로 증액을 한다라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고요. 실제 그 증액의 의미가 단순히 예산 증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R&D 시스템 체계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위 말해서 낭비적인 요소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좀 더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제도개선도 하고 그 바탕에서 그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수혜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을 늘려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자료화면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실 자료화면은 일본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

강도현 과기부제2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

다음 페이지요.

‘자본관계에 대한 재검토 요청’.

다음 페이지요.

‘자본적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한 관계 각 사에 재검토 요청’.

차관님께서는 이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증인 강도현 저희들이 이 일에 임함에 있어서 그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해석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표기가 자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네이버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 왔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차관님은 어느 나라 차관님이십니까?

○증인 강도현 대한민국 차관입니다.

○이해민 위원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의 내용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5월 8일, 5월 9일 날 일련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발언들이,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날 우려를 표명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민 위원 말씀하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행정지도에서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 내용이, ‘자본관계 재검토’ 그 내용이 주식에 관한 자본 구조를 재편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려 주시지요.

○증인 강도현 제가 브리핑했던 문구는, 위원님이 주셨던 그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렇게……

○이해민 위원 ‘하였으나’……

○증인 강도현 우리 기업이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총무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CISO에 대한 문제라든지 위탁처의 처리 문제……

○**이해민 위원** 시간이 가고 있어서 좀 짧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었느냐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자료에다 내셨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증인 강도현** 저의 그 브리핑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두 차례 있었고……

○**이해민 위원** 브리핑 말고 어떤 대응을, 실질적인 대응을 하셨습니까?

○**증인 강도현** 저희 협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장관 만찬……

○**이해민 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습니까?

○**증인 강도현** 아직까지 7월 1일까지 제출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이해민 위원** 7월 1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출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 강도현** 저희들은 자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 어제는 제가 네이버의 경영진 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구성원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도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안타깝고 끝납니까?

○**증인 강도현** 저희로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네이버가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네이버……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7월 1일 전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속하실지를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는 이런 항목이 나왔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삭제 요구하시고 사과받아 내십시오. 항목 삭제 요구를 7월 1일 전에 하시고 사과를 받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종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네이버 직원분이 말씀하셨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 대표께서는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해민 위원** 제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실 건지 아닌지만 답을 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증인 이종호** 정부에서는 일본……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이거 마무리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아쉽지만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신 겁니까?

○**증인 이종호** 답변 더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마무리 일단……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네이버 측과 저희는 네이버의 어떤 이익이 손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고요. 네이버하고 그런 국제적인 기업들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뭔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네이버가 무슨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든지 부당한 조치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으로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서울시 관악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R&D 예산 삭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정부는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불법적으로 그리고 출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컼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과기부는 다음 연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6월 30일까지가 아닌 8월 22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회의이고요. 그 회의에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또 물론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22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행정부 내의 어떤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일들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민규 위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호** 그 제출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지나서 제출한 것은 맞는데……

○**박민규 위원** 위반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장관님……

○**증인 이종호**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과기부장관을 비롯해서 R&D 수행 각 부처 장관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R&D 사업 예산 108개를 삭감했습니다. 단계평가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단계평가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종호** 제가 일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든……

○**박민규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평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장관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바로 작년 3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때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증인 이종호** 예.

○**박민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 불법적이고 졸속적 예산 삭감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장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의 그런 어떤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그런 거를 선도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박민규 위원** 그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결로 이해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

○**증인 이종호** 뭔가 이렇게 좀 제도도 바꾸고 제대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박민규 위원** 그렇다고 5년짜리 계획을 처음 발표해 놓고서 바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이 한마디 못 했다는 게 과연 국가 R&D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23년 9월에 제출된 23년부터 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재정지출계획도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재정운용 분야, R&D 분야의 투자계획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변동사항, 변동요인, 향후 관리계획을 담은 평가보고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평가·분석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과기부장관님, 반도체 분야 연구로 유명하신 석학 출신이십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호** 과거에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과학계에 계신 분들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그런 낭비적인 요소나 우리가 좀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을 깔끔하게 개선을 해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체제도 만들고 그 위에서 예산을 제대로 증액해서 또 선택과 집중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 데 일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런데 위원들은 이 5분 안에 질의한 걸 다 소화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가능하면 간결하고 짧게 요약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아까 저희 당 위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성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으면 동료 위원을 이렇게 모욕 주듯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난 일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민주당이 그 문구를 선관위가 쓰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거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상임위 배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죄에 연결이 돼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김현 위원** 현안질의하시라고요.

○**박정훈 위원** 예, 현안질의하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홍일** 전번에 우리가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되게 비슷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같은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취지라고 하면 사실상 언론노조의 산하에 공영방송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우선 지금 현재 방송법 46조나 방문진법 6조에 의하면 각 분야의 대표자가 이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3법에 의하면 방송계가 16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 빼놓고 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들이라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박정훈 위원** 오히려 편향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증인 김홍일** 예, 대표성도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서 결국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이사회 인원이 늘어나면서 운영비용도 40억 가까이 더 들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요, 보통 이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범답안은 없겠지만 대략 우리나라가 공공기관도 보면 대개 한 15인 이내인데 지금 21명은 좀 과도하게 많아서 의사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기정통부2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이동통신이 문제가 생겨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 게 맞지요?

○**증인 강도현** 예, 청문 절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납입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주주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 그게 사전에 약속된 것과 다르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증인 강도현** 우선 동일인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그것이 부합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납입자본금이 최초에 2000억 원을 다 납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10%만 먼저 내는 걸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증인 강도현** 주파수 할당 대가는 10%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초기 납입자본금은 그들이 계획에 잡았던 2000억 규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관련해서 약정 내용 그러니까 이 업체가 관련 최초의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금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제4이동통신이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게 좌초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쨌든 비용부담의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도현** 예,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일단 제출에 대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사업자가 제출에 동의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정훈 위원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십시오.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이거 과방 행정실에서 박정훈 위원님 자료제출 내용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먼저 과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하신 내용 보면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심화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입부에 보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학령 인구 감소 우려 때문에 인재 부족이 우려된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것에 배치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언제 소통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의대 증원 발표가 2024년 2월 6일이었거든요. 그전에 어떤 경로로 소통했습니까?

○**증인 이종호**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말씀이지요?

○**이준석 위원** 예.

○**증인 이종호** 저희는 준비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대로 유출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공계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를 여러 차례 해왔고 8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교육부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의대 증원의 가능성은 인지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증인 이종호** 우리가 첫 번째 회의가 언제였지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혹시 1차관님, 기억하십니까?

○**증인 이창윤** 아니요, 저희들이 교육부 쪽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었거나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당사자가……

○**이준석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의대 증원의 가능성, 발표의 가능성 인지, 제가 날짜는 2월 6일이라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어느 시점에 의대 증원이 2000명 가량 될 것인지를 인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무계획 세워 놓으신 것이 제가 보니까요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이상으로 큰 케买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의대 증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 인재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증인 이창윤** 저희들은 사실은 의사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 부처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관점에서 저희 4대 과기원과……

○**이준석 위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구도 통보하고 과기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발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증인 이창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 쪽에 아직 직접적인 의견 문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서울대학교 휴학 통계나 반수 현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이 자료제출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가지고 휴학을 이제 2학기에 하려고 한다, 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그러면 이 발표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근에 의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과정 중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다 의견 표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나 이런 데서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공계에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공계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정책, 단순히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장관님, 짧게……

장관님은 성공한 연구자시니까, 그러면 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현재 의대를 선택한다 보십니까?

○**증인 이종호** 글쎄요, 그건 제가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의사의 어떤 본분으로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나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위원** 본 위원은 후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그 후자에 대한 욕구보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 이종호** 그거를 계량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베니핏을 주고 또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좋고 또 어떤 분야가 나쁘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나 연구비 지원 등보다는 차라리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신 적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아니라기에는 의대 증원 때문에 대타격을 입을 장관님이 이종호 장관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원래 물어봐야만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회의장에서?

○**증인 이종호** 저희는 그 방법보다는 어쨌든 또 이공계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 가는 그런 부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첫 정책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말씀하셔야겠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앞쪽으로 나오셔야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신 겁니까?

○**증인 류희림**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

셔야 됩니다.

오늘 거짓과 허위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 몇 건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 188건입니다. 188건 맞지요? 맞을 겁니다.

○**증인 류희림** 대략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188건이고요.

이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님과 사적 이해에 얹혀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류희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 드릴을 양해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의 가족이나 인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얹힌 사람들을 보면 한 4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절반 이상이, 100여 건이 이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의에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께서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쟁진 민원에 가족과 지인들이 낸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글은 분명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사무처의 부속실장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증인 류희림**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지요.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심위 위원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 뒷자리에 앉아 계신 김유진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회의가 2024년 1월 3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는데 3시간 전에 회의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되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망가신 겁니까?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당초 후인 1월 8일에 1차 정기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는 왜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여를 오후 3시에 하시고 비공개 논의 제안을 했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또 비공개 전환 표결을 주장하시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이렇게 과행을 해 버리는 것은 방심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회를 하시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인 류희림 당시 위원회 상황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현안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지금 안 됩니다. 현안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주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께서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통위법에 의하면 13조 1항에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적위원은 현재 명부에 올라 있는 위원 수 2인입니다. 따라서 2인의 과반수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당연합니다.

○**박충권 위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밸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지 않아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밸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개정안 밸의와 관계없이 2인 체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야당이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그해 8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방통위원의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미루다가 11월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셨습니까? 당시 민주당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민주당에 따로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청문회에서 청문회 끝내면서 방통위의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드린 일이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당시 최민희 방통위원 선임은 결격사유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당시 김현 방통위원의 후임이라도 추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취임할 때는 최민희 방통위원 선임 문제는 그 당시 종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민주당은 방통위를 5인 체제로 구성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 밸의 등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기에만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KBS2, SBS, 지역 MBC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의 재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달간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민주당 안대로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방통위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이렇게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할 경우 신속한 현안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법정 기한이 있는 그런 현안에 대처하는 문제에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위원장님의 탄핵 소추도 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된다면 방통위의 업무 자체가 마비될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결국 방송시장에 영향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방통위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두 달 뒤 임기 만료 예정인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들마저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을 유지하고 여기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마저 통과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방송 4법은 사회적으로 논란 여지가 매우 많으며 국회법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강행하면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MBC하고 방문진과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이상한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청문회 때 방통위는 회의제이기 때문에 1인 체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13조 1·2항에 ‘방통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해야 되니까 자구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 11월 29일 날 방통위원회 회의에서, 저기 보시면 11월 29일 날 3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건인데 1건은 이동관 위원장 기피, 1건은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YTN 매각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4조에 보시면 제척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28차 위원회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제척사유가 있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현 간사가 방통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렇다면 YTN 민영화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회의를 해야 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동관 위원장 한 분이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인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한 건지 의문이 생기고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날 회의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2월 7일 날 최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의결을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홍일** 조금 전에 저한테 질의하셨잖아요.

○**이훈기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방금 화장실이 급해서 좀 나갔습니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 기다리시지요. 이것 중단하고 기다리시고요.

그 사이에 방통위원장께 이훈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방통위원장께…… 좀 이따 하고요.

류희림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직 안 오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오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셨습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날 MBC에서 류희림 위원장님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PPT 보시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심위의 심의 안건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는 총 52건에 MBC가 8건인데 그 후에 전체 29건 중에 MBC에 대한 제재가 13건,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3건 중에서 11건은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해 줬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증인 류희림** 저 사건이 MBC가 단독 보도한 게 작년 12월 25일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100건……

○**이훈기 위원** 표적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류희림** 일단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시간을 다 뺏고 계시잖아요.

○증인 류희림 그래서 그것을 표적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누가 봐도 표적심사잖아요.

○증인 류희림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위원 답변하랬지 질문하랬어요?

○이훈기 위원 시간 좀 더……

○위원장 최민희 안 됩니다. 5분 안에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여기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증인 류희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환경, 과학기술 쪽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방송에 대한 환경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국가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암울함이 듣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안질문에 앞서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의 증인 고발 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사장의 인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것은 첫째, 개인적으로도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사장의 인신에 대한 부분이 제약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국민적 정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그것이 부정적일까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께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KBS 사장이 지금까지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국회에 나오게 되면, 물론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에 성실하게 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치적 공방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기피해 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 증인 고발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다수의 힘으로 방송 길들이기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조인이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이상휘 위원 어떻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보니까 방송 생태가 어떻습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요, 여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 대 3 구도로 그대로 가고 있었지요? 3 대 2 구도지요?

○**증인 김홍일** 방통위 설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2……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지금 2인 체제 계속되고 있고요.

○**증인 김홍일** 예, 2인입니다.

○**이상휘 위원** 지금 왜 2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2인만 지금 임명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휘 위원** 아직 민주당 추천 안 됐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온 뒤에 추천 안 됐습니다.

○**이상휘 위원** 추천되면 2인 체제에서 벗어나겠네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추천 안 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지금 추천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리기간이?

○**증인 김홍일** 추천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됩니다.

○**이상휘 위원** 처리기간은 빨리 서두를 수 있다?

○**증인 김홍일** 예.

○**이상휘 위원** 2인 체제 때문에 탄핵 대상에 거론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잘…… 뭐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상휘 위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그런 것은……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지요. 흥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은 보내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미 제2, 제3 이동관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요.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예고된 탄핵, 민주당에서 민주당 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에 나와 있지요?

글쎄요, 저 부분이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의총으로 찬성했던 안이라고 보는데—뭐 당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도 출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적 가능성, 법률적 가능성 등등 언급하는데 저도 박사까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

○**이상휘 위원** 법률적 가능, 실제적 가능?

○**증인 김홍일**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저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는 것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께서 ‘100분 토론’에서 토론자들과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안 나옵니까? 영상 없습니까? 준비 안 됐나요?

○**김현 위원** 시간 다 갑니다.

○**이상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은 다음 기회에 제가……

○**위원장 최민희**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장이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7분 쓰겠습니다.

김유진 위원 나와 계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김유진 위원, 본인 소개하시지요.

○**참고인 김유진** 방심위원 김유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9월 5일로 돌아가 봅니다. 9월 5일 방심위원회 소위가 열리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참석했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건이 긴급심의로 올라오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긴급심의로 올리는 것 반대하셨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왜 반대하셨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긴급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방심위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들이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민원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실제로 류희림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긴급심의가 일상화돼 버렸는데요. 긴급심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불편한 보도들이 긴급심의로 올라오게 되고 사실상 정치심의와 표적심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심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긴급심의는 재난이나 중대 공익 침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참고인 김유진** 그동안 그렇게 합의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후에 긴급심의 안건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하고, 그 긴급심의 안건 의결 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당일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3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심소위는 본래 몇 명이 재적위원입니까?

○참고인 김유진 그 당시에는 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4명이지요? 그런데 옥시찬 위원이 참석 안 했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3명이면 그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결?

○참고인 김유진 의결정족수는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당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표결에 부치려고 해서 제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을 했더니 저를 기권 처리해서 2 대 1로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 대 1로 가결한 것 위법적인 거지요? 규칙 위반이지요?

○참고인 김유진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날의 결정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9월 4일 국회에서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방심위를 통해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했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9월 4일 5시 이후에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PPT 띠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위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까지 총 165건, 188건이라고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류희림 위원장 가족·지인 60건, 연관 의심단체 35건 맞습니다.

다음 PPT, 여기 쌍둥이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근무하던 단체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민원 넣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의 부인과 함께 대구 A수련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강요하지는 않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여기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됐느냐면 누군지 모르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말하기를 ‘류희림 위원장의 후배가 부탁을 했다’, 그래서 동생이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민원 사주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긴급심의에 대해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긴급심의 안건이 그 이후에 9개월간 총 2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2건 중에 80%에 육박하는 18건이 정부 및 여당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맞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긴급심의를 야기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용보도의 내용이 뭐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한 의혹보도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것을 언론사들이 인용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MBC 관련 보도가 22건 중에 혹시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0건입니다.

그리고 긴급심의 안건 중에 MBC 건이 20건, 이 20건 중의 16건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보도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이후 KBS는 신속심의 1건, 문제 없음 처리됐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년, 2024년 뉴스 신뢰도 1위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MBC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58%, 2024년 57%입니다.

좀 죄송하기는 한데 김유진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원에서 잘린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해촉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해촉됐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해촉을 건의했던 사유는 회의진행 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법원에 갔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위원장 최민희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촉에 대해.

○위원장 최민희 집행정지하면서 지금 말씀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밝혔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재판부가. 그리고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공익성이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유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온 방심위원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소회가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제가 돌아와서 기쁘다기보다는 저의 진상규명 노력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원하면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기구가 언론통제기구로 전락을 했고 표적심의와 정치심의가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 맞지요?

○조인철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민주당 위원 조인철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아까 현안보고 때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유가, 자본금 문제가 좀 있나요?

○증인 이종호 예, 지금 주요한 부분은 자본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주주도 바뀌었고 주주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법이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일곱 번 있었더라고요. 맞지요?

○증인 이종호 이전에 여러 차례 4이통사의 그런……

○조인철 위원 2010년 6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 10월 달에. 그다음에 2016년 1월 달에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4이통사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혹시 그 재정 능력을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약간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증인 이종호 글쎄요, 뭐……

○조인철 위원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일곱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증인 이종호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이통사에 대한,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경쟁체제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하셨고 지금 그 경쟁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19년도에 보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또 바꾸시잖아요.

○증인 이종호 그렇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능력이 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또 취소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4통이 진짜 필요한 건지, 주파수 할당이 이 대역대에서 다시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인 이종호 그렇지요.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4이통사는 기존의 통신 3사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기가 대역에서 밴드를 크게 주면 굉장히, 좀 전문용어입니다만,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증인 이종호** 그런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스테이지엑스에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그것을 가져왔다면 문제가 없……

○**조인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온갖 곳에서 자본투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자본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돈이 안 몰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조인철 위원** 이거를 굳이 매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종호** 그렇게 해서 28기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3사의 경쟁, 과점구조를 완화시켜서 4사가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줄 수도 있지요.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개의 통신사 과점체제를 좀 완화시킨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과점체제가 완전히 낫아지나요?

실제로 지금 우리 거의 100%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보급률을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인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더 서비스가 나와 봤자 새로운 수요자가 또 창출이 되나요?

○**증인 이종호**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8기가라는 독특한, 28기가만의 어떤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넓어지고……

○**조인철 위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요금을 좀 인하하겠다는 목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을 통해서.

○**증인 이종호** 경쟁을 통해서……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국민에 편익이 되게……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게, 우리 행정 신뢰나 이런 것들을 허물어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저희 당 쪽에서나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통법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단통법 폐지는 이전에 대비해서 통신요금은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부분

들을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제4통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곱 번이나 똑같은 이유로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또 여덟 번째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장, 요금이라는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증인 이종호** 예, 앞으로는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신성범입니다.

이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신성범 위원** R&D 예산 관련해서 다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결과만 놓고 보면 국회에서 한 6000억 정도 증액이 됐지요?

○**증인 이종호** 예, 작년에 국회 여야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나눠 먹기 식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혁신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연히 낼 수 있고 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비효율과 낭비요인은 걸어 내는 게 맞는 것이지요.

다만 아마 이게 과정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돼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원상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부 안에서 할 때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친 거지요?

○**증인 이종호**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신성범 위원** 절차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했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외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은 사실은 공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따라서, 지금 네이버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매각이나 이런 협상도 진행 중인 거지요? 비즈니스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증인 이종호** 예, 네이버도 사업을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기업 전략으로서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지도 있고 나서 바로 또 대응을 해서 네이버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의 입장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언제 한번…… 네이버의 입장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또 하나, 다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예.

○**신성범 위원**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두 분만 계시는데 이게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님은 청문회를 거쳐서 되셨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명 케이스인데 야당,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안 해서 지금 비어 있는 것이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추천을 안 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지적은 국회를 향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천 안 해 놓고 왜 2명만 가지고 회의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같이 들려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에 걸려서 넘어왔던 법이, 다시 국회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방통법과 이른바 3법 내지 4법은 작년의 21대 국회 법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내용이 다른 점을 찾아보셨어요?

○**증인 김홍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안 바뀔 테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낸 안을 보면 굉장히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송보도와 제작 기술 등의 단체를 이야기할 때, 저도 소속이었습니다만 방송기자연합회 또는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라는 게 방송기자들이 다 모여서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닐 터이고 기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PD연합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는 MBC가 했으면 다음에는 KBS가 해라 이런 식으로 임의단체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각 2명씩 뽑아서 이사진을 구성한다는 게 대표성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대표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런 성격의 조직의 구성요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대강 압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전에 제 옆에 계시는 조인철 위원님께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질의하시고 답변도 받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 전에, 4·10 총선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고발까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른바 관권선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평소에 안 하고 계셨었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한 언론에 따르면 900조가 된다는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른바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도 저는 출속적이고 선거를 앞두고 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인하시키겠다, 어떤 선거 표를 위해서 그런 허풍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일단 스테이지엑스 문제는 앞서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통법 문제하고 전환지원금 문제 이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매달 나가는 통신비나 휴대전화 단말기, 저도 바꿀 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그렇고. 한데 지난 1월 22일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은 안 하셨는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 이후에 정말 방통위가 시행령을 막 밀어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더라고요. 규칙, 상당히 법 조항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 밀어붙이셨는데, 당시 우리 위원장이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단통법 폐지를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폐지 전에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단통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대로 요새 단말기가 프리미엄급으로 자꾸, 고가의 단말기가 자꾸 보급이 되다 보니까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단말기 구입 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단통법에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서도 지금 단통법 문제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폐지를 당 대표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거와 대통령의 격노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한마디를 듣고 또 방통위가 총대를 메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 말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정말 윤석열 정부가 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통신비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리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위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하위법령은 위헌이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번 방통위에서 시행령 강행하셨잖아요.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이 과정에서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잖아요. 5일로 줄이셨지요?

○**증인 김홍일** 이것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제처장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했군요. 그리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입법예고 기간도 위반한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증인 김홍일** 행정절차법대로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줄여 가지고 뭐가 좋아졌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방통위 자료 보니까 전환지원금 제도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이게 시행된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131만 5518건입니다. 맞을 겁니다, 방통위 자료니까.

그런데 시행 전인 올 1월부터 3월 15일—똑같은 기간이에요—기간 동안에 이동한 번호수가 132만 9774건이에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1만 4256건이.

○**증인 김홍일** 전환지원금 저희들이 한 정책의 성패는 번호이동 대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이용자 후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이종호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황정아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항우연 감사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자문의뢰서와 결과서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실·국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법인에서도 비공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 중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시면 불법입니다.

○**증인 이종호**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가능한 한 빨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R&D 예산이 당초 설계됐던 예산 대비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증인 이종호** 정확하게는 비R&D 1.8조를 빼면 9.4%가 삭감이 됐습니다.

○**황정아 위원** 당초 정부안 기준의 5.2조 원 삭감됐었고 민주당이 매우 매우 크게 노력을 해서 회복시킨 게 6000억이어서 4.6조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종호** 원래 안이 위원님, 연구비의 구성 요소가 주요 R&D하고 일반 R&D, 비R&D 해서 비R&D 부분이 원래 R&D에서 빠져나가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부처에서 그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R&D에서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삭감으로 볼 수 있는데 지원이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황정아 위원** 그 정도 금액이 맞지요?

○**증인 이종호** 예, 9.4%가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R&D 계획과제 사업별 예산 삭감 이유를 질의했더니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겉어 낸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복불한 내용의 답변만 들었는데 비효율과 낭비라고 판단했던 무슨 정량적 지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 이종호** 실제로 그 이전에 연구비가 특정 부서에서도 많이 갑자기 늘어서 위원님들도 아마 어찌면 많은 다른 채널로 의견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우리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여야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심지어 연구계에서도 돈이 새는 요인들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렇게 나눠 준다든지 보조금 성격으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너는 잘못했으니까……

○**황정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호** 너만 골라내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대통령이 말한 나눠 먹기 식 카르텔 R&D 구조가 3개월 만에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3개월 만에 예산을 다시 역대 최대치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R&D계를 향해서. 그런 나눠 주기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좀 없애고 또 한편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선도형 연구로 나아가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정말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 그리고……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미래 짧은 인재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황정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국가 통계에서 연구 현장의 피해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5개월 연속 계속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1월, 2월, 3월에 3000명 이상씩 증가, 비자발적인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력 누수가 이미 발생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올릴 거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증인 이종호** 내년에 올리니까 기다리라는 말이 글쎄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비자발적, R&D에서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되신 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해 봤는데 유의미하게 지금 R&D가 삭감이 돼서 그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걸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첫 상임위에 왔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많은 충격을 사실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좀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좀 수용도를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은 국회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많은 비난도 받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R&D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줄이고 R&D 시스템이나 R&D를 좀 더 전문화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황정아 위원님 질문에 제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대치보다 크다고 했는데 실제 내년 R&D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호 이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R&D 예산을 증액한다, 그러니까 선도형 R&D 시스템 혁신을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R&D 예산을 증액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아직,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6월 27일 자문회의 이후에 공식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수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R&D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서 아까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타 면제가 필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증인 이종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AI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타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타 하는 동안에 예타의 목표치가 바뀝니다. 그만큼 기술 변화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AI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기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예타 시스템을 딱 하면,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AI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미 다른 나라는 한참 더 발전해 버리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연구계에서도 이것 예타 문제 있다, 좀 빨리 해결하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참 큰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기계에서는 아주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진 위원 맞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해야 저희가 미래 먹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3법을 발의를 하였고 예타 면제조항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서 그거를 제외했지만 염려와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어차피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종호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전에는 부처 내의 예산에 대해서 실링, 한도 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놨을 때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아주 아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처의 노력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 R&D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 예산 소요 규모가 맞는가 이런 등을 체크를 하고요.

또 투자 예타에는 R&D 예타 말고도 건축형, 체계형 이런 인프라 관련된 R&D 예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어떤 시설 구축, 장비 구축이라면 빨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체계 사업이라든지 큰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기존의 그런 예타 제도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요. 실제 또 예타를 통해서 R&D도 진행이 되면 중간에 또 점검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예산을 감축하기도 하고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제도로 예산을 아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과 어떤 정책, 규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도 바뀌어야 되고 과기혁신법도 바꿔야 되고 과학기술기본법도 바꿔야 되고 이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위원님들 꼭 좀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정말 훌륭한, R&D가 훌륭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류희림 위원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증인 류희림 7월 22일까지입니다.

○김우영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증인 류희림 예.

○김우영 위원 위촉은 언제 되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비상임으로 위촉된 것은 작년 8월 18일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누가 줬습니까?

○증인 류희림 위촉장은 따로 받은 적은 없고 제가 보내 온 걸 봤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그 위촉장을 수여한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거지요?

○증인 류희림 수여는 따로 없었고 저한테 보내 온 명의는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혹시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방심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 그런 기본적인 요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증인 류희림 전혀 없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왜 어떤 경위로 방심위원장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없나요?

○**증인 류희림** 글쎄요, 저로서는 방송기자 또는 방송 관련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될 뿐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송심의를 한다는 것은 방송·언론인들의 생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것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방심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시청자 주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증인 류희림** 저는 85년 방송기자로 시작해서 30여 년간 방송기자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증인 류희림** 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잡힌 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게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주권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 있는 행정권력, 집행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증인 류희림** 예, 동의합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방송 전문성이나 이런 해당 분야의 종사 업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아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증인 김홍일** 예, 방통위 업무의 주 영역이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민간 독립기구라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볼 수 있지요, 방심 위원장이?

○**증인 김홍일** 공직자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어떤 업무와 관련한 사적인 관계, 친척, 친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다고 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증인 김홍일** 위반했으면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우영 위원** 그렇겠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우영 위원** 그러면 아까 MBC 관련 보도에 최민희 위원장님이 언급한 민원 사주와 관련한 이 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김우영 위원**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반

업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방송 독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나 상황 파악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저희들은 그렇지만 방심위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께서는 예전에 폐놀 사건 폭로하여 가지고 홀륭한 기자로 꼽힌 적도 있으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것은 방송인으로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자로서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류희림** 그 당시에 보도를 하는 데 간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MBC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방송사든 간에 방송심의의 어떤 불균등성 그다음에 편중성 또 과도한 어떤 특정 정파에 기울어 있는 제재로 인해서 후배 방송인들이 방송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심리적 위축을 당한다면 선배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인 류희림** 저희는 방송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양심에 손을 얹고 지난 기간 동안의 방심위 활동에서 일체의 편중함이나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는 과방위에 와서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위해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함께 초당파적 논의를 기대했는데 걱정하던 대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딱합니다.

내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방심위원장에게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로이터저널리즘부터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늘 보시니까. 내가 그것 띄워 볼까 하는데, 지금 안 올라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로이터저널리즘 최근 호입니다. 2023 이게 최근 호입니다. 최근 호인데, 142페이지에 사우스 코리아가 나옵니다. 매우 부끄러운 것은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우리 언론의 신뢰도를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사한 국가 중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가 28%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나라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MBC 이야기하시는데 MBC, KBS, SBS 다 비슷합니다, JTBC는 조금 낮고 YTN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히려 보면 ‘믿지 않는다’는 또 MBC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파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왜 우리 언론 생태계가 이렇게 악화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걸 둘러싸고서 지금 여야가 입장이 갈려서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방통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이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은 우리 언론의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이터저널리즘 143페이지에서 언급한 것 보면 왜 신뢰도가 낮느냐? ‘공정하지 않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낮은데 왜 그러냐? ‘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될 텐데 요즘 최근 일부 언론들은 정권의, 어떤 정치권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스로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이런 균형을 무너뜨린 것조차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 저게 FCC입니다. 미국의 우리 방통위 같은 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EQUAL OPPORTUNITIES’ 돼 있지요? ‘(SOMETIMES CALLED EQUAL TIME)’,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은 시간이라도 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MBC 뉴스의 여야 균형 보도량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다음 보시지요.

공영방송으로 유명한 BBC 보십시오. BBC에서도 임파셜리티(impartiality),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고 페어니스(fairness)입니다, 페어니스. 페어니스의 요체는 타임 이퀄리티(time equality)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지금 우리 방심위하고 방통위가 좀 이런 페어니스와 임파셜리티, 타임 이퀄리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한번 볼까요? 방송 MBC하고 KBS가 보면 다 그래도 공영준칙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다 있어요. 안 지킵니다, 그런데. 최악이 언제였느냐? 마지막 보실까요. ‘윤 커피’ 요즘 말하는, 아까 오늘 한창 많이 나온 바로 김만배, 신 누구입니까? 저게 지금 조작 녹취 아닙니까? MBC 뉴스가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다음 보십시오. 처음부터 전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방송을, 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공영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죽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정권, 아무리 미운 정당이라도? 이건 정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에는 정말 이런 문제 말고 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BS 사장도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에도 KBS 사장을 여야가 합의해서 참고인으로 부르고 했습니다. 중인으로는 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중인으로 불러서 안 나올 걸 알고서 불러서 엎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맙시다. 그것 좀 페어하게 합시다, 페어하게 좀.

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다돼 가기 때문에…… 간사라고 더 시간 안 주지요?

○위원장 최민희 물론이지요. 너무 잘 아십니다.

○최형우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간사로서, 저 또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쉽게도

민주당 위원님 한 분이 우리 당 위원을 심각하게 인격 모독하고 명예 훼손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태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 정말 윤리적 자격을 갖춰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앞으로 이 상임위에서 내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과연 윤리적으로 합당한 짓인지를 저희는 따지고 나갈 겁니다. 윤리적으로 부당한, 과거의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여기에서 어떤 보복을, 여기를 보복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우리 이훈기…… 죄송합니다. 내가 이름 거명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언론을 상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희라는 이름으로 당한 온갖 모욕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PPT 띠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FM방송국, 지상파방송국으로 허가장을 내 줬잖아요. 알지요? 방송정책국 소관이지요?

○증인 이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까지의 허가증인가요, 유효 기간이?

○증인 이현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올해 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답변 안 하는 거예요?

○증인 이현 12월 31일……

○김현 위원 2024년 12월 31일.

○증인 이현 예.

○김현 위원 저 직인이 누구 직인입니까?

○증인 이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인입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 직인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허가증을 줄 때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심사 시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이 성실히 이행이 되어야 되고 매년 추가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요? 지금 봤고 있습니까? TBS 상황을 매년 점검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현 예, 매년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그 TBS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러니까 폐국? 그러면 TBS에 검사·감독권 했나요, 방통위가?

○증인 이현 저희가……

○**김현 위원**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에게 보고한 적 있나요? 지금 TBS 상황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런 것 혹시 보고한 적 있으신가요? 또는 보고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증인 이현** TBS는 저희가 2022년에 의견제시를 한번 위원님도 아시듯이 했었고……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2024년 12월 31일인데 5월 31일부터 재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폐국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방송정책국장님.

혹시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없지요?

○**증인 이현** 예, TBS의……

○**김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증인 이현** 예.

○**김현 위원** 없는 거지요? 직무유기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혹시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조건을 점검해야 된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그것 몇 년 단위지요?

○**증인 김홍일** 매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YTN이 이 조건을, 보도PP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홍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하셨나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증인 김홍일** 6월 28일까지인가 아마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매년 4월 달 재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4월 전에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요.

○**증인 김홍일** 아니요……

○**김현 위원** 재승인할 때, 잠깐만요……

○**증인 김홍일** 추가 조건을 3개월 내에……

○**김현 위원** YTN 재승인……

○**증인 김홍일** 추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김현 위원**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재승인하셨지요, 4월 달에?

○**증인 김홍일**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재승인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받으셨지요?

○**증인 김홍일**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 보고받는 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그 안에 있었습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방송정책국장 나오세요.

○**증인 김홍일** 제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 다시 나오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보고하셨나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 ‘예’지요?

○**증인 이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김현 위원** 국장님 오늘 협안질의할 때 두꺼운 책자 만들어 가지고 국·과별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요?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보고 안 받으셨다면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유기입니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처장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YTN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조성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 위원** 기억이 안 납니다?

저기 배석하고 있는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나오세요. 방송지원정책과장 나오세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시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과장이 배석하고 있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과장 나오라고요.

○**증인 이현** 과장은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4월에 YTN 재승인할 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없었습니까?

○**증인 이현** 제 기억에 의하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는 내용이 들어……

○**김현 위원** 아니, 그걸 왜 ‘기억이’ 합니까?

○**증인 이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들어 있다고.

○**증인 이현** 재승인 사업계획서……

○**김현 위원** 들어 있지요?

○**증인 이현**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조건이지요?

○**증인 이현** 조건이 아니라 제출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지원정책과에서 보고할 때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등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행실적은 매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사계획을 수립해서 심사위원회한테 보고한다, 그것은 2024년.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재승인을 해주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거기에 ‘보도PP 재승인 조건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지요, 기억은 안 나지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재승인 점검할 때, 재승인 조건 할 때요, 사업계획서 다 보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증인 김홍일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 안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있습니다.

○증인 김홍일 조건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것 중요한 사실을 두 분이 다른 말을 하고 계신데 사실확인하겠습니다.

보좌관님,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홍일 허가 조건에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사업계획서가 다 참고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보여 드리세요.

○증인 김홍일 재승인 조건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위원장 최민희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뭘 기억하십니까?

김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증인 김홍일 증인선서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나는 대로만 답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를 하실 분들 계십니까?

참고인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참고인 질의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상휘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그리고 이제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질의를 아까 했을 뿐입니다.

5분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참고인 질의 7분 하고 또 본질의 5분 하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 기회를 지금 이상휘 위원님……

○최형두 위원 그것 합쳐서 해야지……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처음에……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이상휘 위원님 아까 5분 질의하셨는데 참고인 질의 7분 더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질의 하시겠다고 손 든 이정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7분 더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이나 이준석 위원님, 참고인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휘 위원 한 분이십니까?

○최형두 위원 참고인 누구입니까? 참고인 지금……

○위원장 최민희 너무하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 현안보고만 듣고……

○위원장 최민희 회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 하겠습니다. 7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7분 쓰십시오. 그런데 참고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5분 넣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심화 질의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정연주 사장 해촉된 것 아시지요?

○증인 김홍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연주 사장, 정연주 전 위원장 법카 위반 몇 건입니까?

○증인 김홍일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광복 부위원장 법카 위반 몇 건입니까?

○증인 김홍일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성욱 위원 법카 위반 몇 건입니까?

○증인 김홍일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성은 처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 세우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 추가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연주 전 위원장 법카 위반 몇 건입니까?

○증인 조성은 정확한 건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할 겁니까? 그 뒤에 자료 주십시오. 처장님 이렇게 모십니까?

이광복 부위원장 법카 위반 몇 건입니까?

○증인 조성은 그것도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성욱 위원 법카 위반이 몇 건입니까?

○증인 조성은 그것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게 무슨…… 제가 지난번에 이것 추가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요.

정연주 전 위원장 법카 13건, 이광복 부위원장 법카 9건, 황성욱 상임위원 법카 24건……

정연주 전 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조성은 해촉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광복 부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조성은 해촉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성욱 위원 법카 24건,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조성은 현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세요.

- 이게 방통위 감사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한 정말 불공정한 처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심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증인 김홍일 저는 이상인 위원하고 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또 한 분 있지요, 이동관 전 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증인 김홍일 정확히……
- 위원장 최민희 지난번에 그쪽 위원회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김홍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것 세우시고요.
조성은 처장 나오세요.
누구누구입니까, 방심위원?
- 증인 조성은 방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류희림 위원장하고……
-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숙지하고 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증인 조성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문재완 위원, 이정옥 위원……
- 증인 조성은 이정옥 아닌가요?
- 위원장 최민희 이정옥 위원, 잘 아시네요.
이동관 위원장 누구 추천입니까? 빨리 답하세요.
- 증인 조성은 이동관 위원장님이요?
- 위원장 최민희 예. 누구 추천입니까? 누가 추천해서 임명한 겁니까? 대통령 추천 뭐……
이상인 부위원장 누구 추천이에요? 빨리 답하세요.
- 증인 조성은 대통령……
- 위원장 최민희 김홍일 위원장 누구 추천입니까?
- 증인 조성은 대통령……
-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 누구 추천입니까?
- 증인 조성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문재완, 이정옥 위원 누구 추천입니까?
- 증인 조성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황열현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국회의장이 추천했습니다. 최선영 위원, 국회의장이 추천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가 추천했습니다. 임명 세 명 다 안 했어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제 앞에서!
- 방통위원장님, KOBACO 사장 언제 임명합니까?
- 증인 김홍일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지금 세 명으로 압축됐습니까?
- 증인 김홍일 하여튼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민희 모르세요?

○증인 김홍일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시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OBACO 사장이 유력했던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KOBACO 직원이 사장으로 오냐고 물었답니다. ‘나는 관심없다’, 그러면 누가 오냐 그랬더니 ‘민 모 씨가 낙점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그분을 밟니까?’ 했더니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라서 되는 거다’라고. 이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모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사실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그것 확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제가……

○위원장 최민희 김홍일 위원장님 되실 때……

○증인 김홍일 세 명 중에서 제가 임명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홍일 위원장님 되실 때 어디서 연락받았습니까?

○증인 김홍일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참고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 하십시오.

이것 참고인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겁니까? 참고인 질의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한 명씩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최다출자자가 맞지요?

○참고인 권태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임기가 시작되셨고 임기 만료가 언제입니까?

○참고인 권태선 2021년 8월 13일 임기가 시작됐고 올해 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정현 위원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군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은 이사장님께 어떤 날입니까?

○참고인 권태선 방통위에서 해임된 날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 당시에 방통위의 어떤 사람들이 회의를 주재하고 해임을 결정했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그 당시에 저의 해임 의결에 참여하신 분은 여기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맞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이 지나서 이동관 방통

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나흘을 남겨 둔 상태에서 서둘러서 왜 이사장님을 해임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권태선** 이동관 위원장이 해임하는 것보다 전임대행 체제에서 해임하는 것이 이동관 위원장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통위가 어떤 근거로 이사장님을 해임했는지 대표적인 것 있으면 몇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권태선** 이사로서의 선관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제가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와 후임이사 선임 집행정지 그 두 개의 재판, 여섯 개의 재판에서 이 모든 것은 해임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적법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당시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장님을 해임하면서 몇 가지 내세웠던 이유들을 보니까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그리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 해임 결정이 났을 때 이 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결과가 곧바로 나왔었지요?

○**참고인 권태선** 예.

○**이정현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저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현 위원** 제가 그 자료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9월 11일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방통위가 주장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를 두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군요.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의 복직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참고인 권태선**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도 복직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군요.

○**참고인 권태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통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이사장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권태선**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경영진을 교체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2008년 이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사실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분이었다라고 여러 가지 문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공

영방송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영화를 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에 MBC를 길들이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참고인 권태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고등법원도 이사장님의 손을 들어줬군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2023년 10월에 나왔어요.

이 판결문도 보니까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방문진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 탓으로 돌렸다’.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사실 저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감사원과 방통위가 협력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 3일 날 감사원에 출두해서 출석조사를 받는데 그날 방통위에서 저의 해임 청문을 통지하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의 내용이 아직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서 나온, 아까 말한 감사방해 혐의라든가 아니면 감사 사안에 관련된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기록되었고 그것을 복사해서 붙인 것이 저의 해임 사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판단하셨는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권태선** 우선 정치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사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일일이 지적한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가고 외국에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조항은 있지만 그것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임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민주적인 사회라고 자부한다고 하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임의로 근거도 없이 해임하고, 그것을 해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BBC에서.....

○**위원장 최민희** 권태선 이사장님!

○**참고인 권태선** 예.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한다고 합니다.

이상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7분입니다.

이상휘 위원 먼저 하시고 김현 위원 하시고……

○**이상휘 위원** 김유진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7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이터저널리즘까지 이야기하시고 MBC까지 언급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본 오차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언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유진 위원님, 쭉 참고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추천이시지요?

○**참고인 김유진**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입니다.

○**이상휘 위원** 문재인 정부?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추천이 정확하게 대통령……

○**참고인 김유진**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입니다.

○**이상휘 위원** 대통령 추천이시고요?

약력을 보니까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그다음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몰라서요.

○**참고인 김유진** 1984년에 해직 언론인들이 세운 언론운동단체이고요,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상휘 위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를 하셨네요?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이것 언제쯤이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니, 본인이 근무한 그 연도를 기억 못 하신단 말입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 아마 19년부터 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휘 위원** 19년부터 21년이요?

○**참고인 김유진** 제가 위낙 많은 일을 해 와서 KOBACO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늘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쨌든 보면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등등에 관련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 건 맞네요. 저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참고인 김유진** 친밀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적입니다.

○**이상휘 위원** 언론관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언론관이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심의……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왜냐하면 저도 방송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언론을 꼭 전공했다 해서 방송을 심의한다, 언론을 심의한다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참고인이 어떠한 레코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참고인의 진술 말씀을 쭉 듣고 과연 저 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편향되게 비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우리 참고인께서 어떠한 레코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긴급심의, 신속심의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번 근무하실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심의는 어떤 요건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예를 들어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피해자나 희생자들의 인권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크다거나 했을 때 정말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할 때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긴급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긴급심의와 신속심의에 대한 요건 규정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나 하면요 인권이라든가 등등의 중대한 참사에 있어서 기준을 둘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민적 정서라든가 또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긴급심의나 신속심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 해촉 사유가 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해촉 사유가 회의진행 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두 가지였습니다.

○**이상휘 위원** 죄송합니다만 회의 방해는 어떤 거였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니, 모르는 그런 해촉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참고인 김유진** 저는 회의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회의 방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참고인 김유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어떤 행위가 회의 진행 방해인지.

○**이상휘 위원**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송심의위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때 같이 심의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횟수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내용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유진** 무엇의 횟수와 무엇의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상휘 위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인께서도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횟수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

○참고인 김유진 횟수와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겠지요.

김어준 아시지요?

○참고인 김유진 예?

○이상휘 위원 김어준.

○참고인 김유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상휘 위원 잘 모르시지요? 자주 들으셨지요? 안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김유진 저는 개인적으로 김어준 씨의 방송을 듣지 않고요, 방송심의에 필요할 때만 들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의 요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것 느끼지 못했습니까, 들으셨을 때?

○참고인 김유진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방송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횟수가 중요하고 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도 심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부에서 어느 언론을 더 특정으로 많이 하고 어느 정부에서 어느 특정 언론이 좀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정치권에 늘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균형감을 정치가 또는 언론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인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이 아주 경사되고 아주 편중되고 아주 언론 장악의 어떤 음모로 비쳐질까 봐 제가 참고인을 불러서 그런 어떤 관념을 좀 여쭙고 싶어서 참고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권태선 이사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난해 8월 달에 이사 청문 계획서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혹시 그게 어느 법에 의거해서 받으셨나요?

○참고인 권태선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22조 의견청취, 28조 의견제출 그다음에 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을 밟으셨잖아요.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해당 분야 전문가니까 한번 우회로 여쭤보는데,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는 겁니다, 유진으로. 그러면 청문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런 이사 해임할 때도 청문을 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사 해임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참고인 권태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것 받았지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행정절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외려 지키지 않고……

○참고인 권태선 그러니까 절차법……

○김현 위원 10일이라는 기간……

○참고인 권태선 10일이라는 기간만 지켰지 행정절차법에서 그 청문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복사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사 요청한 것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또 원래 이 청문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를 해임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청문 내용……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청문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에 대해 질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해서 청문 종료 후에 청문조서를 확인하고 행정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참고인 권태선 예,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해임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MBC 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MBC 사장의 당시의 해임 조건이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참고인 권태선 MBC 사장이……

○김현 위원 문제 지적이 됐던 내용이……

○참고인 권태선 그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김현 위원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인 권태선 예, 검찰에서……

○김현 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참고인 권태선 무혐의……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장님을 해임하려고 하면 MBC 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찰에서 기소가 되고 또 검찰에서, 재판이 진행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방문진 이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 거라는 의미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카더라 하는 통신 내지는 제3노조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 안아서 그것이 그 해임처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참고인 권태선 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다라는 걸 해임 사유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방문진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권한 중에 5항이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의 공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거지요?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그다음에 MBC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방문진이 다루는 거고 결산승인도 다루는 거고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사장추천에 관한 사항, 이것이 공히 다 방문진에서 다루는 거지요?

○참고인 권태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 그다음에 공적 책임, 그러니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계량화돼서 재허가를 받을 때 타당한지 아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이때 방문진 이사장님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나요?

○참고인 권태선 어디의 심사위원회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재허가 당시에……

○참고인 권태선 재허가 당시에는 아마 MBC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없고?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그러니까 MBC가 가서 이 심사 조항,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기본계획을 제대로 했는지,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을 MBC 관계자가 가서 의견 진술을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의결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 심사 조건에?

○참고인 권태선 제가 재허가 조건을 갖다가 면밀히 알지는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김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공적 책임, 기본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사장 추천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조건을 붙여서 심사를 받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회에서.

○참고인 권태선 아, 저희 이사회에서요?

○김현 위원 예.

○참고인 권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조건에 다 부합해야지 의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예.

○김현 위원 그런 의미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2명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이사를 뽑는

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사를 뽑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사가 계속 임기가 보장돼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법에 후임이 뽑히지 않을 경우에 후임이 뽑힐 때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못 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태선 예.

BBC가 2020년도에 ‘공공서비스미디어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BBC의 역할 중에서 창의적 경제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역할을 통해서 BBC가 영국 경제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 공영방송을 정치적인 잣대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영방송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공영방송이 만들어진 것은 1988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이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위한 방송, 어느 대통령을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니라 시민의 방송이고 공공의 방송인데 이 방송을 잘 키워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나아가 그 방송이 정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키워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질의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권태선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문진이라는 게 뭐니까, 방문진?

○참고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최형두 위원 무엇을 진흥시킵니까?

○참고인 권태선 앞에 ‘방송문화 진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송문화를 진흥하는 것이겠지요.

○최형두 위원 그 방송문화는 공정성과 비당파성입니까, 아니면 편파성입니까?

○참고인 권태선 제가 답변할까요?

○최형두 위원 이사장님, 들어 보십시오.

PPT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사장님 재임기간 중에 한때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던 MBC가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참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 따질게요.

방문진 이사장님 아까 BBC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BBC도 이야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입니다. 뉴스 리포트인데, 로이터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회자되니까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최근 건데 아워 글로벌 서베이(our global survey)에서 가장

낮은 수치, 28%. 국민들이……

○참고인 권태선 아니, 그게 MBC가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 일반이지 않습니까?

○최형두 위원 들어 보십시오. MBC의 책임이 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참고인 권태선 예.

○최형두 위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을 보면 MBC 뉴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냐 하면 ‘MBC가 로이터저널리즘 뉴스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8%, 여기 보면 옆에 자그마한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각 방송사들이 다 있습니다. 지상파는 다 50% 이상 넘었습니다. 오히려 MBC가 공평한 방송이라면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상파 중에 가장 높았다, 이것도 같이 보도해 주셔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투표를 모아서 국민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 3월 3일, 3월 7일 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월 7일 날 MBC 뉴스 보도 순서입니다. 여기 볼까요?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그다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은 어떤 인연?”

다음, 세 번째.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 환수 비난한 김만배”.

전부 거짓말이었지요, 이거. 그래서 지금 기소도 돼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윤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 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이게 이사장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참고인 권태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영방송들, 지상파방송들은 순위가 높다라고 얘기하셨지만 MBC는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이래 계속 신뢰도가 상승해 왔고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만 신뢰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최형두 위원 그건 이사장님 혼자 주장일 뿐이지요.

○참고인 권태선 국내에서 조사하는 모든 데서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 보세요.

○참고인 권태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28%로 낮은데 MBC는 신뢰도가 57%, 58%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KBS, SBS, JTBC도 그렇고 YTN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권태선 KBS는 1위를 하다가 지금 5위로 떨어졌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이, 참.

○참고인 권태선 그런 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사장님, 나중에 내가 드릴 테니까 읽어 보세요.

○참고인 권태선 저도 봤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보고 저도 봤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실태가 그렇다, 실태가 그

래서 MBC가 지상파 중에 가장 신뢰하지 않는…… 다 그것도 어금버금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도 그렇고.

○**참고인 권태선** 불신도가……

○**최형두 위원** 자, 보세요.

○**참고인 권태선** 불신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 뉴스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선거 이틀 전에 MBC 뉴스가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했던 이 보도 순서와 보도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방송문화 진흥에 합당한 것입니까?

○**참고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최형두 위원** 궤변이십니다.

자, 보시고요. 볼게요.

○**참고인 권태선**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송법 4조가 무엇……

○**최형두 위원** 그러면 그만두셔야 되지요.

○**참고인 권태선** 개별적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개별적 프로그램이지만 BBC라든가 미국 방통위에서는 선거 때 공정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이사장님이시면, 우리 공영방송의 이사장님이시면 이런 것 좀 아셔야지요. 알고 하셔야지 어떤 때는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가장 핵심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참고인 권태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편파성입니까?

○**참고인 권태선** 아니, 그 공정성을 가지고……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것은 MBC의……

○**참고인 권태선** 그게 반대가 편파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MBC에 공영방송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스스로가 만든 방송 가이드라인도 다 어기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시간 균형이 있습니까? BBC라든가 FCC가 권고하는 타임 이퀄리티, 임파셜리티 이거 보장됩니까? 페어니스 있습니까?

○**참고인 권태선** 그건 하루의 방송에서 타임 이퀄리티를……

○**최형두 위원** ‘그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 존경받는 언론계 출신으로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런 걸 좀 살펴주십시오, 이사장님.

○**참고인 권태선** 예, 저도……

○**최형두 위원** 자, 보십시오.

○**참고인 권태선** 제가 나이가 칠십입니다.

○**최형두 위원** BBC의 선거 가이드라인, 2021년 겁니다. ‘모든 정당의 정책과 캠페인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MBC의 3월 7일 자 보도는 여기 어디에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보실게요. 미국 FCC도,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 더더욱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하면 똑같은 시간을 주라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MBC 뉴스가 똑같은 시간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도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방문진 이사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방송문화를 제대로 진흥해 주십시오. 한때 우리 MBC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계 출신으로서, 존경하는 우리 언론계 선배 출신으로서 언론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우리 과방위가, 과방위라는 이름 자체도 풀네임을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과’, ‘방’ 2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송이 60%, 90% 더 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이것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융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고요.

지금 권태선 이사장과 최형두 간사 위원님의 주장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육성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 그대로 제가 갖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띄워졌어요.

○위원장 최민희 띄워졌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채널A 신뢰도 41%, 불신도 29%.

TV조선, 조선일보……

○최형두 위원 지상파만 비교를 했던 거지요, 제가.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상파 비교할까요?

○최형두 위원 지상파 비교해 보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지상파 보십시오.

KBS가 신뢰도 51%, 불신도 25%입니다.

MBC 볼까요? 신뢰도 57%, 불신도 22%입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것 보십시오. 이게 최근치입니다. KBS……

○위원장 최민희 아니, 최근치가 아니고 이게 똑같……

앉으세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앉으세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나온 건데?

○최형두 위원 아니, 2021년…… 지금 2023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앉으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읽으시려면……

위원장께서 심판입니까? 저희가 문답을 통해서, 상임위의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최형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 자료 갖고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니, 다릅니다. 이건 2023년 자료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4년입니다.

그것 이리 주십시오. 몇 년도 전지 볼게요.

○최형두 위원 2023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2023년 겁니다. 저는 2024년 것 공평하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상파에서 KBS가 신뢰도 51%, 불신도 25%입니다. MBC가 신뢰도 57%, 불신도 22%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중에 불신도가 MBC가 가장 높다는 말은 팩트체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형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종면 위원 이게 2024년 맞아요. 위원님 보시는 게 2023년이에요.

○김현 위원 간사님……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게 2024년 거고, 갖고 계신 건 2023년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정훈 위원 그래서 MBC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팩트체크한 겁니다.

○김현 위원 아니, 박정훈 위원님. 자제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거 틀렸습니까, 이 자료?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엄정하게 합시다.

○박정훈 위원 데이터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자제하시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 대한 온갖 모욕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인데 오늘 통 크게 합니다. 좀 가만히 계십시오.

안건조정위원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에 대하여 최형두 위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조정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오늘 8시까지 양 간사님께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안전조정위원회께서는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이거를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할 건데요.

잠깐만요. 이런 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안건 심사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김현 간사랑도 상의를 했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를 하는 까닭은 숙려기간을 두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상호 좀 생각을 더 해 보자는 일인데 그걸 바로 지금 해 가지고 이 표결이 뻔한 방식으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방위 전통뿐 아니라 국회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 물을 게 많습니다. 과연 과거에 KBS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늘 MBC 방문진 이사장님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불출석의 죄를 씌우려고 했던 이런 프레임도 저는 참 불공평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더 이상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고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으로 과방위를 과행시켰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말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과방위 과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 자, 국회법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의 취지를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이준석 위원 그러면 정족수 안 되지 않아요?

○김현 위원 돼요, 돼.

○위원장 최민희 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위해서 제가 정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최민희 위원장님, 저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의 답변이 잘못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보공개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이미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의 명백한 규정을 제시했음에도 또다시 장관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위증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저희 의원실이 이미 수십 통의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회신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방통위 자료제출 거부 관련해서 위원장의 위증 고발 필요하다는 입장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관계자 징계 요구를 우리 상임위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이후 과정을 좀 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희 위원께서 제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발언이나 동영상 재생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제게도 동일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방심위원장이 MBC에 대한 징계 건수와 관련해서 허위 답변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지난해 9월 방심위원장이 된 이후로 MBC에 부과한 2023년도 말까지의 제재

건수가 9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30건입니다. 라디오·TV 다 합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9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무려 30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별점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그러니까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마이너스 121점입니다. 1년도 안 되는데 특정 사를 상대로 마이너스 121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 주의 1건 감점 1, 2022년 주의 4건 감점 4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황정아 위원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 증감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시간은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됩니다.

질의 순서는 노종면 위원부터 시작합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질의 시간에 김홍일 위원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 사주, 청부민원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방통위는 방심위의 감독기관이고 또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심위 제재들을 방통위원장 본인이 부위원장하고 직접 의결해 줬습니다, 따박따박. 그런데 모르는 게 그렇게 당당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답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과정에서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재허가·재승인 등의 시점이 정해져 있는 규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외에도 민원 관련 업무, 기본 업무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YTN 매각은 빛의 속도로 처리하셨지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방심위 제재는 평년 대비 약 10배 정도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처리해 줬어요. 이건 방통위가 아니라, 방통위의 방망이는 통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그런 방망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들이 2인 체제가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을 하던데요.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않고 놓친 기간이 7개월이 넘습니다. 법제처가 판단을 안 한 기간도 석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지난 일이라고 그러더군요.

최선영 방심위원, 아직도 일곱 달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를. 대통령이 공식 사과해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유, 2분이나 썼네요.

PPT 음성파일 하나 듣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류희림 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질문을 들어 주세요.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고 2년 전에 류 위원장이 주선한 자리……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이거 세워 드릴게요. 세워 주세요.

○**노종면 위원** 2년 전 고 김정민 공군 소령 추모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음악회 기억하시지요?

짧게 답변하세요. 본인이 주최했습니까?

○**증인 류희림** 고 김정민 소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종면 위원** 김건희 여사도 직접 섭외하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아니, 방금 김정민……

○**노종면 위원** 보시면 다 아는 건데 뭘 모르는 척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그게 아니라 방금 김정민 소령이라고……

○**노종면 위원** 김정민.

○**증인 류희림**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셨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전부터 김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고 혹시 보거나 그러던 사이였습니까?

○**증인 류희림** 저 날 행사 때 30분 전에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이 오셔 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오신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전에는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요?

○**증인 류희림**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 사진에 등을 보이고 있는 분이 혹시 부인이신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부인 얘기 잠깐 하지요. 단월드 계열인 비인가 학교 교장을 오래 하셨지요?

○**증인 류희림** 비인가가 아니고 이건 등록……

○**노종면 위원** 달리 물어볼게요.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장 오래 하셨지요?

○**증인 류희림** 등록 대안학교입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도 단월드 계열 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이신가요?

○**증인 류희림** 저희 집사람 문제는……

○**노종면 위원** 부총장이시지요?

○**증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아니, 왜 YTN에……

○**증인 류희림**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예단하지 마십시오.

증인이 YTN에 있을 때 저분 교장이던 시절에—약 1년 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직접 부인 인터뷰를 1년에 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작진 동원해서?

○**증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사적인 얘기인지는 국민과 국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학교, 그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세세한 일들 촬영해서 방송한 것, 역시 한 1년 동안에 수십 차례나 YTN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YTN 관련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까?

○증인 류희림 전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아, 그래요?

위증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본 위원이, 제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답변에 책임지십시오.

친누나 곱창전골집까지 YTN 제작진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자격을 따지는 겁니다.

다시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년 전 류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고요.

한 사진 더 보지요.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건 지난해 2월인데요. 이때도 경주엑스포 대표셨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김건희 여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아는 사이인가요?

○증인 류희림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요?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안면이 터 있고 임성근 사단장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지요? 다른 거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증인 류희림 저게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청부 민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 하나 보여 주시지요.

앞서서 질의가 됐던 거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들, 동생, 동생의 부인, 동서, 처제, 조카 민원 청구된 것, 접수된 것 시인하세요? 이것도 얘기 못 해요?

○증인 류희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안은.....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증인 류희림 권익위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띄워 보세요.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 잠깐 드려도.....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제 말에 먼저 답하십시오.

○증인 류희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 화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라는데.....

동생이, 혹은 아들이, 제수씨가 민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민원……

○위원장 최민희 이게 뭘 답변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증인 류희림 민원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위원장 최민희 그게 아닙니다.

○증인 류희림 알려지지도 않고 저도 모르는 사안이고……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증인 류희림 저는 확인할 수……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방심위에 이분들이 민원 신청을 한 일이 있나 없냐 물었습니다.

○증인 류희림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말입니까? 왜…… 말이 안 되지요. 그런 팩트가 있나 없나를 묻는데 왜 그걸 답 못 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권익위 조사가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증인 류희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양해 못 하겠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최민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영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아까 과기부장관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라인 관련돼서 답변에 대한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기자분들 질문이 쏟아져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정부는 지금 바로 7월 1일 전에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내의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국익을 위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 끝나신…… 의사진행?

○이해민 위원 동영상……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 멈추고 다시……

(영상자료 상영)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촘촘하게 예산을 챙기겠다 하셨습니다, 장관님.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장밋빛 이야기했습니다. 저 학생, 카이스트 4학년 재학생입니다. 이공계 유인책 말씀하셨고 정부 R&D 본연의 모습에 맞지 않는 예산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누구의 마음대로 그 본연을 재단하시는 것인지…… 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평정하시다면 그 장관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마음입니까, 장관의 마음입니까, 자문위원장님의 마음입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대한민국 이공계 인력의 액소더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작년 6월 29일 각 부처에 R&D 예산 구조조정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인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리셨는지요?

○증인 이종호 기획재정부장관께 알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민 위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위반입니다.

○증인 이종호 아까 오후에 답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민 위원 그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이종호 R&D 예산안 제출 시기 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이해민 위원 알리셨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날까지……

○증인 이종호 잠깐, 뭘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지요?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29일 날 예산 구조조정 요구하셨고요. 법에는 30일까지 기재부에 알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종호 그게 시간이,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하루 만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 학생 얼굴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학기술계의 짜을 잘라 버리신 작년 6월 29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암흑기가 시작된 날로 장관님의 이름과 함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많이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학생이 정말 훌륭한 과학기술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도 했고,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민 위원 질의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미사여구 듣자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아니,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 듣자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증인 이종호 아니, 그……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이해민 위원님, 저 얘기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질의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들으시겠답니다.

○증인 이종호 질의가 아니시군요.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인 줄 알고……

○위원장 최민희 잠깐 여러분께,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증언 등의 거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거부 조항에 권익위 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류희림 증인이 계속해서 권익위 조사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건 삭제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드리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증언 등의 거부 3조에 덧붙여서 제13조(국회 모욕의 죄)를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증언 거부가 반복적으로 있는 일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모욕의 죄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방위 행정실과 위원장실 보좌관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 나중에 일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경과보고를 듣고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20시38분)

○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안전조정위원장 나오셔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김현 안전조정위원회의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전조정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혹시 행정실 쪽에서 최근에 이런 사안이, 실제 증인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했을 때 바로 첫 번째 불출석 때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바로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출석에 대해서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툴 것이 없고 시간을 특정해서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는 나중에 고발한 뒤에 결국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일단 불출석한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고발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혹시 가장 최근의 선례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최근의 선례라면 21대 국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2대 국회는 지금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이준석 위원**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정부 측 관계자나 아니면 박민 사장과 같은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저희가 선례를 세움에 따라 가지고 차후에 발생하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21대 국회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의결한 사례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조금만 보태자면 박민 사장에 대한 개별 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중에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박민 사장이 ‘저 사람은 왜 고발 안 하고 나만 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거고 그 검토한 내용이 보편적 상식과 법에 타당해야 되겠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 기다려 주실까요?

2022년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에서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게 딱 한 건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일단 지금 찾은 게, 급하게 찾은 것이 이 한 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경청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20시44분)

○위원장 최민희 다시 현안질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R&D 예산 삭감으로 올해 연구개발 현장은 방금 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연구가 중단되고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줄이는 극단적 상황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독 올해 글로벌 예산만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R&D 예산 삭감의 이유를 카르텔 이권 나누기라고 했는데 글로벌 R&D 예산만 골라서 증액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왜 글로벌 R&D 예산만 3배 이상 증액했습니까?

○증인 이종호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R&D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저희 과기정통부도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R&D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계적으로—저도 많이 봤고—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역량이 상당히 선도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과학기술 차이가 커서 협력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하고 협력을 하려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협력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장관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구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유권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기관이 사업을 주관한 경우 그 연구 성과는 도대체 어느 기관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증인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규정을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호 인정하는 형태,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비를 받았을 때 또는 그쪽에서 연구비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제적인 표준, 관례 이런 걸 잘 따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규 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내 R&D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젊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 이럴 때 왜 새롭게 글로벌 R&D를 한다면서 규정도 준비도 가장 중요한 성과물에 대한, IP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칙도 정하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증인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

○박민규 위원 질문한 거 아닙니다.

○증인 이종호 예.

○박민규 위원 과기부장관님, 지금 중요한 건 장관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R&D 예산의 복원입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알리는 올해, 내년도지요. R&D 예산안 상세내역, 6월 30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증인 이종호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일단 6월 27일 과기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나면 그때 액수를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세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 때 지적했듯이 작년도 과기부 R&D 예산의 삭감은 불법적으로 출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그 어디에 상세내역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R&D 예산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쟁기는 예산이야말로 국회 입법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굶어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 6월 14일 자로 내년도 기초연구 분야 R&D 예산 편성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답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재 배분 조정 중이므로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 자료제출 거부 또 제가 요청했던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R&D 예산 상세자료, 반드시 6월 30일 행정 절차가 끝난 이후 입법부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강력히 요구드리며 본 위원회는 계속 그것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이상인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홍일 위원장님 출석하셨을 때 방통위 회의에서 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조정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방통위 측에서 사전조정회의라고 하는 간담회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간담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건을 관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께서 동일하게 여쭤봤는데요. 두 분 간에 혹시 회의 중에 의견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인 간담회라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정식의 위원회에서 모든 결론의하게 되지만 그전에 안건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 그리고 조율 그걸 필요로 해서 법령에는 없지만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증인 이상인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정식의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증인 이상인 특별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위원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운영할 때 저희가 국회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나 아니면 예전에 쪽지 예산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투명한 절차를 원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 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과정을 진행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통위의 회의록을 제가 대부분 찾아봤는데 이견이 서로 노출된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하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걸 보니까 간담회 결과 자료나 아니면 안건 배부 시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추가질의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지금 2인 체제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공식회의에서 논의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전 간담회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남겨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를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장관님께 아까 하던 질의 그대로 같이 하자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의사들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저는 열치기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가 적어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인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소개하실 만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증인 이종호 위원님 질의의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 바람이 많고 해서 직접적으로 의사 수 증원에 의견을 내야 될 입장이……

○이준석 위원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도 노선이나 도로 노선이 개통하길 바란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가 그에 따른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과기부장관님께서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국무회의에서나 여러 경로로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공계 쪽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제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얘기를 굳이 하자면 가능한 한 우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앞으로 잘 만들어 줘서 훌륭한 학생들이……

○이준석 위원 장관님,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거는 소위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오히려 의사결정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님께서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국민들 바람이나 의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는 역할을 안 하시는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이종호** 역으로 그런 이슈가 되면 또 부처의 욕심에 따라서 의대로 가는 거를 예를 들면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이준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지역구를 맡으시거나 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오셔 가지고 다각적 고려를 하셔 가지고 활동하셔야 하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상호 충돌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인센티브를 얘기하시고, 아까 장관께서는 아마 금전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의대 진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셨는데……

○**증인 이종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꼭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또 제도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이준석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 또 한번 질문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의대로 가시는 분들 중에 사명감에 의해 가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그런 처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증인 이종호**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해 가지고 지금 국내 이공계 인력들이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보이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종합적’, ‘다양한’, ‘다각적’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는 해법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증인 이종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도 줄어들고 이공계의 많은 R&D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리더가 ‘이 분야에 몇 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데이터 기반의, 현명하게, 정말 어디에서 얼마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연도별로—그다음에 어떤 전공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계약정원제로 역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도 키우고 또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성과학자도 좀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적인 것도 만들어 드리고, 많이 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지요?

2분 드리세요.

○**이훈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께서 MBC에 대한 법정제재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심위에 확인을 했더니 방심위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류희

럼 위원장이 그런 얘기, 발언,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방심위와 선방심위 포함해서 2021년에 1건, 2022년에 4건, 2023년에 9건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30건이에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하고 급격히 증가했는데 아까 저는 위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류희림 위원장이 정확히 위증하셨다고 저는 보이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확한 수치와 근거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을 모시는 방심위 사무처장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이현주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질의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사무처장 계십니까? 방심위 사무처장 계십니까?

방심위 사무처장께 위원장이 요청드립니다.

지금 노종면·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의 정확한 통계 자료, 방심위 통계 자료, 이거 금방 되지요, 전문가시니까? 통계 자료 내서 지금 즉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이정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식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류희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훈기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증인 류희림 제가 지난해에 9월 8일 취임 이후……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증인 류희림 이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세우세요.

○이정현 위원 멈추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시지요? 그런데 급하시더라도 이정현 위원님 질의권을 침해하시면 안 돼요.

○증인 류희림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저희 지금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위원장. 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 55초로 해 주시고요.

이정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그만큼 위원장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

책임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청부민원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임시회의, 전체회의 계속 피하시고 정회하시고 과행을 잇따라 하셨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으면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부한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류희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권익위 조사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방탄조끼입니까, 위원장께? 권익위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면 그냥 답변 안하고 계속 뭉개도 되는 겁니까?

○**증인 류희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정현 위원** 위원장.

○**증인 류희림**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신 위원장께서 2024년 1월 12일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했던 김유진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중대한 범죄행위だ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반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당시 1월 12일 회의를 연 거는 1월 9일 날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저에게 폭력행위와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연 것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청부민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논의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도망 다니신 위원장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역할들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서 징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방심 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목적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참 답답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조끼 경찰 조사와 함께 권익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 대해서?

○**증인 류희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에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

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류희림

○이정현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그래서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12월 23일 신고돼서요 오늘까지 186일째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원회의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 KBS 사장은 신고 84일이 걸렸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186일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권익위의 조사가 위원장께는 방탄조끼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증인 류희림 권익위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증인 류희림 7월 22일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7월 22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퇴임하시기 전까지 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이해충돌법의 법률 위반 혐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이정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질질 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뒷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현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개월 넘게 방심위원 위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원장께서는 어떠한,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에게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해촉되거나 퀼위가 되었을 때 후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궐 위원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임명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위원장 최민희 답하세요. 며칠 만에.....

○증인 류희림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며칠입니까, 보궐 위원?

○증인 류희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기 있잖아요. 커닝하세요.

○증인 류희림 예, 저기에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7개월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증인 류희림 그 부분은 저희는 그런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

○김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류희림 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지금 보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의 거부)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관계고요. 친족이라 함은 팔촌·사촌에 포함된 것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조사받고 있는, 국민권익위나 경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그 안에는 가족, 아들, 조카, 처제는..... 사촌·팔촌까지 가능한데 동서 김땡땡 그다음에 류희림이 2019년부터 3년간 근무하던 경주엑스포 관련 6명,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특위 위원 2명 그다음에 류희림 동생 류희목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수련원 강사 4명,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거부할 수 없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언 거부에 해당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위원장님이 류희림 위원장의 증언 거부에 대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증언 거부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권익위 조사를 평계 대거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되는 것으로 압니까?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나? 직접 출두하신 일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직접 출석은 없는데.....

○위원장 최민희 없지요?

○증인 류희림 예.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없지요?

○**증인 류희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거를 평계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본인이 민원 사주 의혹을 시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는데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증인 이상인**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위원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훈기 위원님,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제가 전혀 안 보이셔 가지고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냐하면 얼굴이 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김현 위원** 안 보여요. 여기 전체가 안 보여요. 저희도 안 보여요.

○**위원장 최민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얼굴을 뵙고 질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훈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YTN 매각권에 대하여 기피 신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인**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기피신청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서 각하 의결이 됐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신의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에 그날, 문제된 2023년 11월 29일 회의에 참석 하셔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까?

○**증인 이상인** 각하에 대해서 이동판 위원장과 저와 같이 각하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YTN 안건을 심의했잖아요, 세 번째 안건이. 거기에도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이상인**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훈기 위원** YTN 매각과 관련된 안건이 그날 있었잖아요. 아까 PPT 띄웠잖아요.

○**증인 이상인** 예.

○**이훈기 위원** 그 안건 심의 의결에도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이상인** 참여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건 불법이지요.

○**증인 이상인** 불법 아닙니다.

○**이훈기 위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3월 달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은?

○**증인 이상인** 누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까?

○**이훈기 위원** 부위원장님이 유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증인 이상인** 그거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 됐을 때 제척 사유인 것이지 법에는, 저는 한 10년 전에 변론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법정에 정해진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건 불법입니다. 자신이 기피신청 대상인데 자신이 참여해서 의결을 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이상인** 대법원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그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위원회 구성 여부 그리고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는……

○**이훈기 위원** 법원에서는……

○**증인 이상인**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법원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건에 대해서 노조에서 한 것은 각하를 했지만 우리사주조합에서 한 것은……

○**증인 이상인** 그것도 각하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자격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다음 3월 달에 받아들였어요.

○**증인 이상인** 그것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지, 저희는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각하했던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 의결에 참여해서 YTN 매각을 결정했고 그걸 받아 갖고 방통위원장께서 2월 달에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YTN 매각은……

○**증인 이상인** 저는 방통위원으로서 심의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유진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행정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참여해서 의결을 하고 그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상인** 행정법원에서는 저한테 문제 있다는 그런 판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원고 적격을 인정을 했어요. 5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했고요.

○**증인 이상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훈기 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증인 이상인** 저에 대한 제척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11월 29일 기피신청 건에 대한 원본 회의록, 속기록, 법률 검토 자료, 근거 자료 일체를 당장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요청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자료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상인** 비공개 회의록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지 저희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개최될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MBC, 류희림 위원장님께 물었던 것처럼 표적심사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저는, MBC가 최근에 여러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채 해병 순직 건도, MBC가 이종섭 장관 출국 건이라든가 대통령실 통화 기록을 단독 보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채 해병 순직 건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재허가 때 방통위원회에서 MBC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통위원장께서는 MBC의 이런 무더기 징계조치가 재허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증인 김홍일 우선 방통위에서 방심위의 제재 결정을, 제재 요청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방통위법 25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제재조치가 많고, 지금 이걸 따지면 벌점이 100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허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재허가와 관련한 감점 요인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대부분 처분 취소……

○이훈기 위원 재허가 통과 기준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증인 김홍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훈기 위원 몇 점입니까?

○증인 김홍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점수 모르시네요.

○증인 김홍일 600점, 650점, 700점 이상 이렇게 해서 600점 이상이면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심위의 심의 또 방통위원회의 재허가, 저는 이게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나리오처럼 보이거든요.

○증인 김홍일 아니, 방심위에서 제재조치 요청을 하면 방통위로서는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정동영 위원 질의입니다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5분 하겠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님, 유진그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증인 이상인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위원장 최민희 아니, 무슨 관계입니까?

소송 맡은 적 있습니까? 유진그룹 중요 인사의 소송 맡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위원장 최민희 10년 전에……

○증인 이상인 제가 변호사하면서 맡은 여러 사건 중에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면 누구요? 유진그룹 전체?

○증인 이상인 유 모 회장의……

○위원장 최민희 유진그룹 회장?

○증인 이상인 형사 변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요약하면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 얘기지요?

○증인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아까 언급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지요? 권익위원장이셨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작년 12월 23일까지 처리된 사건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남영진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분들 막 속전속결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러고는 본인은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아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장경식 단장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나오세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과 친척과 주변 인물들이 방심위에 민원 넣었다는 것을 최초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한 9월 14일경에……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언제입니까? 9월 14일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담당 직원이 최초 인지한 건 9월 13일, 장경식 단장이 인지한 게 9월 14일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가겠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갔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가고 그러면 담당 직원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 동생 등등이 민원 신청을 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충돌이지요, 방심위의 민원 심의와? 이해충돌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위원장이 그걸 알았다면……

○위원장 최민희 그것 답 못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알았다면……

○위원장 최민희 이해충돌이지요, 그 자체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알지 않았어도 그 해당 심의를 동생이 넣었는데 위원장이 심의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 위원장 최민희 이해충돌이지요?

증인으로 변경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방심위 행동강령 제2장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이 있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 위원장 최민희 내용이 뭡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 위원장 최민희 내용이 뭡니까? 방심위 단장인데 모르겠습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 단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몰라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갑자기 해서.....

○ 위원장 최민희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방통위·방심위, 지금 아래도 되는 겁니까?

이 조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의 평범성, 잘못된 지시를 공직자가 수행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씁니다. 제4조 1항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급자는 1항을 위반하는 지시사항에 대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9월 14일 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다는데 보고 안 했습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1항 위반한 것 아닙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해야 되잖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담당 직원이 초안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왔는데 거기에 민원인의 개인 인적 정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추정해서 가져온 문서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런 얘기 구질구질하게 듣자고 질문한 것 아니에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과 등등이 해당 심의 넣은 것 알고 있었지요? 그날 인지했다면서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등등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보고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저게 뭔 소리입니까?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듭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민원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게 어떻게 직원이 인지했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안 것 아닙니까? 류 씨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은 동생이 심의 넣은 것을 알고 나서, 알게 되면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맞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신고하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는 게 뭡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혹시 작년도 정부 R&D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이종호 작년도가 25.4.

○조인철 위원 작년도가요?

○증인 이종호 아, 29.4.

○조인철 위원 29.4입니다.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3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게 23년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예.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작년에 주요 R&D, 23년 주요 R&D만 하면 29.3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조인철 위원 여기 30조 원이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1페이지.

○증인 류광준 작년도 R&D 예산은 29.3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1조에서 1.8조가 비R&D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숫자가, 모수가 29.3조가……

○조인철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올해 얼마가 깎인 겁니까, 24년도에 전년 대비?

○증인 이종호 그게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조인철 위원 액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조인철 위원 깎였지요?

○증인 이종호 9.4%가 깎였거든요, 실제로.

○증인 류광준 1.8조입니다.

○조인철 위원 깎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종호 이전에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R&D 예산이 줄어든 적이 있어요?

○증인 이종호 없다고 합니다.

○조인철 위원 없지요?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장관님으로서 이 삭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삭감되지 않도록? 작년에 저희가 듣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 식 연구개발 카르텔’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요.

○증인 이종호 그건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눠 주기 식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인철 위원 그 말씀 한마디에 전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을 삭감한 그 논리가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혹시 다른 논리를 대거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분들, 거기에는 언론도 있고 여야 의원도 있고 또 재정 당국도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제에 좀 개선을……

○조인철 위원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그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그렇게 많이 깎는 경우,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걸 깎는 경우에도 상당히 정교하게 깎습니다. 오랫동안 평가를하거나 정리를 해서 깎지 말 한마디에 몇 달 동안도 아닌 몇 개월, 일이 개월 만에 이렇게 깎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래도 뭐 정책적으로 뭔가 좀 빨리 선도형 연구체제로 바꾸어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인철 위원 그러면 23년까지 해 왔던 R&D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계속 계셨으니까, 실제로 그랬나요?

○증인 이종호 저도 많이 들었고요. 갑자기 이전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연구비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어떤……

○조인철 위원 아니, 연구비가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08년부터 19년까지 11년 동안 100% 늘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년에서 23년까지 4년 동안 10조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50% 는 결로 돼 있습니다. 2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에요.

○증인 이종호 4년 사이에 10조 는 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조인철 위원 아니, 비율로 따져 보자고요. 전년도, 그 전에 10년 동안 100% 늘었고 그 뒤에 4년 동안 50%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증인 이종호 위원님,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 가지고 그걸 심지어 이렇게 매니지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좀……

○조인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깎였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증인 이종호 현장하고……

○조인철 위원 그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26분 남았어요, 위원님.

○조인철 위원 남았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 20초 남았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 그래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검을 하셨지요?

○증인 이종호 현장 간담회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을 해서 어떤 계획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제를 종료할 때 뭔가 문제가 없게 하고, 종료함으로 해서 다음 과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그래서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언론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인력들이 심지어 해외까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간담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인 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희 장차관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이 소통을 했고요. 그러한 문제를……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장관님.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왜 같은 답변을 반복하십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러 오셨습니까? 개선된 게 뭐니까? 해외인력 빠져나갔는데, 몇 명이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건 이렇게 막겠다,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현장과 소통했다, 들었다’, 그래서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인내심으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R&D 예산 깎은 일도 없는데 깎은 일이 있다고 답변하는 그 정서적 동기는 뭐니까, 도대체?

○증인 이종호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착각을 합니까? 연구자라면서요? 이게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증인 이종호 대통령께서는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지……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대통령 옹호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연구자 1명을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과 노력과 당사자의 인내가 필요해서 키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옹호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옹호하러 나오셨어요? 정말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데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아까 제가 단통법 시행령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시행령 입법예고기간도 줄이고 고시 행정예고기간도 줄였잖아요. 왜 그랬냐고 여쭤울 때 위원장님이 시급성 얘기를 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뭐가 시급했어요?

○**증인 김홍일**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뒤에……

○**한민수 위원** 단통법은 10년 됐지요, 시행된지도 넘었고……

○**증인 김홍일**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 시급성을 딱, 정말 이 정도로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증인 김홍일** 그 당시에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그런 설명들 저도 많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기간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할 정도로의 시급성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이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가 협행 단통법의 한계나 개선방안이 제대로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 번호이동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한정해 가지고 위약금 지원 명목으로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면서 이용자 차별 상황이 발생하도록 조장이 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봐도 선거 앞두고 관권선거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에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 격노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정말 범죄자가 됐듯이 대통령께서 단통법 폐지 전에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고 하니까 방통위가 앞장서 가지고 시행령을 고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증인 김홍일** 단말기 구입하는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 결코 우리 이용자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물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증인 류희림**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뭘 물었습니까?

○**증인 류희림** 이 얘기만, 이훈기 위원님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증인 류희림** 발언들이 차오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민희** 저기 마이크 끄세요, 저기.

○**증인 류희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기 그거 좀 하나 띄워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시작…… 그거 세워 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 끄세요.

○한민수 위원 자꾸 왜 나올 때마다 그러십니까?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증인 류희림 아니, 그런데 제가……

○한민수 위원 가만히 좀 계셔 보십시오. 제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얘기하시는 건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류희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가만 계셔 보세요.

○위원장 최민희 가만 계세요.

○한민수 위원 그건 따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답변의 기회를 받으세요. 아까도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증인 류희림 죄송합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은 제 질의 시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아직. 나와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시간 가는데, 가뜩이나 아까워 죽겠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거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제가 한 장 준비한 PPT가 있는데 안 뜨네요, 한 장짜리.

(영상자료를 보면)

이런 것까지는 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조합원 대상으로 각 위원들의, 방심위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 이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희림 ……

○한민수 위원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희림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봅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증인 류희림 예.

○한민수 위원 제가…… 저도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장 평가들이 나올 때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정 평가가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못한다’, ‘능력이 없다’ 이게, ‘매우 미흡하다’가 76.2고 ‘미흡’이 20.6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보통입니다. 궁정 평가를 내리신—미안한 얘기입니다만—방심위 직원이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 사주 의혹이 나오고…… 뭐 의혹도 아니지요, 지금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일해 오셨습니까?

관련해서 좀 전에 직원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위원장께 직접 한번 묻고 싶어요. 작년 9월 14일이지요. 심의위원회의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땡 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방심위 내부 관계자는 위원장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명백히 남아 있다는 다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가족 및 지인들의 방심위 청부민원 사실에 대해 정말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없습니까?’ 해서 없다고 했어요, 지금. 없지요?

○증인 류희림 예.

○한민수 위원 없습니다. 없다고 다시 또 확인하셨습니다.

한 언론이 그 당시에 보도한 게 있어요. 위원장이 아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고 아들은 뉴스가 되고 해서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보도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희림 예.

○한민수 위원 사실입니까?

○증인 류희림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의 이런 얘기를 보면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송심의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또 민원 접수한 게 있습니까?

○증인 류희림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민수 위원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증인 류희림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부 관계자랄지 이런 관련된 모든 게 혀위군요, 사실이 아닌?

○증인 류희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류희림 아니요, 제가……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진짜 왜 이러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저거 끄십시오.

○증인 류희림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잘못된 발언이 있어서 정정하는데……

○위원장 최민희 끄십시오. 마이크 끄십시오. 저 마이크 끄십시오.

○증인 류희림 그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건……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십시오.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언제 줄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인 줄 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증인 류희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의 예산 삭감을 사실 삭감이 아니고 예산 참사 혹은 예산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R&D 계속과제 사업별 예산 삭감 이유 물었을 때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속사업 과제가 175개나 줄줄이 올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신규과제 사업예산을 계속 과제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상 법률자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연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연포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행태에 연구 현장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온 연구 현장이, 미래 백년대계를 그릴 과학기술계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말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KAIST 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연과학기술인연구협의회총연합회(연총)의 과학기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 진행이 어렵다 39%, 인건비 부족하다 29%, 채용 및 계약 현장이 불가능해졌다 16%, 연구중단 6% 등의 피해가 현재 이미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 바로 올해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연구는 불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뜻만 내비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태를 막아 보고자 R&D 추경 요청했습니다. R&D 추경, 장관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뿐리까지 다 말라비틀어진 다음에야 움직일 생각이십니까?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첫 과기부장관이시지요? 책임장관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기억하십니까? 과기계 출신이 대통령의 대대적인 R&D 예산 삭감에 아무런 비판도 못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책임장관입니까? 무책임장관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면 장관이라도 나서서 막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이라도 근거 없던 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증인 이종호** 그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연구계에 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전에 수많은 언론이나……

○**황정아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호** 예.

글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계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선도형 연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도 우리가 담아야 되고……

○**황정아 위원**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요,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인 이종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황정아 위원 예, 됐습니다.

○증인 이종호 그렇지만 이러한……

○황정아 위원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기분 따라 내키는 대로 샤워실의 바보처럼 이랬다 저랬다 R&D 정책을 조변석개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오만과 그 독선에 부역한 장관들까지 거부할 것임을 아마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 대응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무능과 늑장 대응의 표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3월 5일 일본의 1차 행정지도가 있은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주일 대사관이 관련 전문을 보냈고 과기부는 한 달 반이 지난 4월 26일에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제영토 침탈 시도를 용인한 다음부터 과기부는 일본의 입장만 용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여전히 일본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꼄입니까?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이종호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서부터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연구계 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특히 연구계에서도 이번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구비 증액을 통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 변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여 줄 수 있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황정아 위원님.

○증인 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황정아 위원 질문은 네이버 지분 매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네이버 지분 매각 물어보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앞 부분은요 황정아 위원님의 생각을 강조하신 겁니다.

○증인 이종호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이거 15초 더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신 건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을 묻고 있는데 무슨 앞엣것 질문도 안 한 것까지 계속하십니까?

황정아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예.

장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이버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지분 매각은 아니다, 지분 매각 외에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했고 라인야후는 이에 발맞춰서 한국인 신중호 이사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뱅크마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라는 요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이종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황정아 위원님이……

○**증인 이종호**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황정아 위원님, 답변을 더 들어야 됩니까?

○**황정아 위원** 아니요, 안 듣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증인 이종호** 그러시면요, 제가……

○**위원장 최민희** 됐습니다.

○**김현 위원** 시간이 끝났어요.

○**증인 이종호**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김현 위원** 장관님! 장관님, 멈추세요.

○**증인 이종호** 예.

○**김현 위원** 시계가 멈췄잖아요.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증인 이종호** 그런데 이전에 답변……

○**김현 위원**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멈추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 가지고 기회를 뺐으면 거기서 멈추시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방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를 언제까지 수행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작년 1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김우영 위원** 아마 그즈음에 아까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셨겠네요?

○**증인 김홍일** 몰랐습니다.

○**김우영 위원** 전임자로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민원은 6개월 이상 장기적 으로 미뤄 두고 또 어떤 민원은 신속 처리하고 이렇게 고무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전례가 많은가요?

○**증인 김홍일** 사건의 성격 그리고 사건에 들어가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규모 그

런 것에 의해서 조사 시간의 장단이 결국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민원인의 신분 또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제반 사항의 공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는커녕 장기간에 걸쳐서 권익위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사항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항입니까?

○**증인 김홍일**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제재조치 요청을, 그러니까 심의 끝에 제재조치를……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인 김홍일** 의결한 뒤에 그걸 요청하면 방통위는 그에 기속돼서 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심위의 의결 사항이 절차나 어떤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그냥 무작정 같이 자연스럽게 의결하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증인 김홍일**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위반됐는지 여부를 방통위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영 위원** 예를 들면 경찰 수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서 방심위의 의결 과정에 중대한 이해충돌이나 실정법의 위반, 관련 사항들이 그렇게 결론 난다면, 그렇다면 그 의결에 있어서의 적절성이나 적법성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의결 내지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김홍일**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실은 알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25조 1항대로 처리합니다.

○**김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심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임기를 종료하게 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 방송 관련 업무에 몸담을 의지가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건가요?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저는 임기까지 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위원** 윤석열 정권과 어떤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에게 특히나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중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방송심의 과정에서 민원 사주, 가족을 동원해서 중대한 방송 언론의 편집과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제재함에 있어서…… 독립성이라는 거는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입니까? 방송심의에 있어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인 류희림** 예, 정치적 중립성부터 해서……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권력이나 대통령도 방송심의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 보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심의를 하고 또 민원 사주를 하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증인 류희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김우영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 **증인 류희림** 예.

○ **김우영 위원**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도 당당히 잘 감수할 용의가 있다?

○ **증인 류희림** 예.

○ **김우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당당함에 1이라도 흠점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방송 관련 공직 업무를 하지 마십시오. 혹여 정권이 당신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했다 하여 무슨 직위를 준다 한들 그거 받지 마세요,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증인 류희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정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영 위원** 당연히 답변을 못 하겠지요.

아까 본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증인 류희림** 예, 그랬습니다.

○ **김우영 위원** 과거에 YTN PLUS 사장 시절에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본인의 친척, 가족의 관련 콘텐츠를 내보낸 사실이 있지요?

○ **증인 류희림** 지금 방심위의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 **김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그런 사실이 방송심의에 올라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이라면 제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증인 류희림**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우영 위원** 그런 태도로 무슨 방송 독립이니 공정이니 운운하십니까? 어떻게 가족을 동원을 해요, 가족을? 이 신성한 방송 독립과 공정성 시장에 폐물을 뿌린 거예요, 당신이.

○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하는 행정청이 어디인가요?

○ **증인 류희림** 저희들이 심의해서……

○ **김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의결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거 물었습니다.

○ **증인 류희림** 전체회의입니다.

○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증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 **김현 위원**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것을 어디다 보고합니까?

○ **증인 류희림** 의결하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 결정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내용 모르신다 그랬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아까 그랬지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증인 김홍일**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 위원** 지금 MBC 등 여러 가지, 11건에 대해서 의결하셨잖아요, 방통위에서. 그거를……

○**증인 김홍일** 제재조치를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명령을 해 줍니다.

○**김현 위원** 명령을 해 주는데 그 명령이 의결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 의결을 합니다.

○**김현 위원** 의결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결하는 겁니다.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4명?

○**증인 김홍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김현 위원** 모른다……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금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했는데요.

지금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모른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재를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훈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심사 점수를 90점에서 120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재허가 심사……

○**김현 위원** 620에서 650점 미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김홍일** 650점 미만……

○**김현 위원** 620점이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니, 650점 미만.

○**김현 위원** 아니, 아까 620점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증인 김홍일** 620점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620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50점 미만만 있습니다.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650점 미만, 650에서 700 이상 그렇게 얘기를……

○**김현 위원** 아까 620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62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쭙겠어요.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50점 미만이면?

- 태도가 그게 뭡니까?
- 증인 김홍일 예?
- 김현 위원 그게 지금…… 뒤로 이렇게 가서 앉는 이유가 뭡니까?
- 증인 김홍일 의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 김현 위원 의자가 넘어갑니까?
- 증인 김홍일 예.
- 김현 위원 의자가 넘어갑니까, 사람 몸이 넘어갑니까?
- 650점 미만이면 어떤……
- 증인 김홍일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 위원 조건부 있고 또요? 또 없습니까?
- 증인 김홍일 재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고요.
-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재허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조건부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건부 허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 증인 김홍일 허가도 할 수 있고 불허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 위원 예,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할 수 있는, 점수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아까 질문에 재허가 조건만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정책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 어제께 간담회 했습니까? 어제 간담회 했습니까?
- 증인 이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김현 위원 어제 간담회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 간담회 했습니까? 어제 월요일이었어요.
- 증인 이현 방송정책국장이 간담회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 위원 간담회 안 했습니까?
-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 간담회 했습니까, 어제께?
- 증인 조성은 어제께 간담회……
- 김현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조성은 아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 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에……
- 증인 조성은 간담회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려십니까?
- 김현 위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 증인 조성은 예, 안 했습니다.
- 김현 위원 그러면 내일 회의 있습니까?
- 증인 조성은 내일 회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취소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없었습니까?
- 증인 조성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 김현 위원 예?
- 그러면 의안 담당하는 기조관 나오시지요. 기조관 나오세요.
- 어제 간담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 위원 그러면 내일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없습니다.

○ 김현 위원 취소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원래 없었습니다.

○ 김현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 김현 위원 원래 있는 날이지요, 내일이? 수요일이면……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뭐 저희 수요일 날 격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 김현 위원 하고 있는데 격주 중의 하나지요, 내일이?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런데……

○ 김현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목요일·금요일 혹시 회의할 예정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아직 없습니다.

○ 김현 위원 없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 김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요 방송정책국장님, 지금 이 자료 나오는 거요 YTN 최다액출자자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을 받았잖아요. 이거 국장님 보신 거지요?

○ 증인 이현 예, 저희가 비밀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위원님께……

○ 김현 위원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조건과 공고에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거 국장님 결재받고 나온 자료잖아요. 아닙니까?

○ 증인 이현 예, 나갔을 겁니다.

○ 김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는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줄 수 없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방송국장의 말과 이 답변이 다른 거지요? 아까 그 계획서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달라요. 방통위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과거에 종편 관련하여 같은 계획서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나왔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22시00분)

○위원장 최민희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청하는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7월 2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답변을 듣고 저희가 사전에 취재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로 배부해 드린 세 분에 대하여 증인으로 7월 2일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실에서는 증인 세 분에게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22시01분)

○위원장 최민희 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조금 전에 방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영업상 비밀이 들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위증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별씨 두 번째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답을 했어요, 영업상 비밀이 들어 있어서 못 주겠다고. 왜 허위 답변을 하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재발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저희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려하실까 봐 기본 방식에 대해서 증인들, 참고인들께도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가설명이 필요할 때는 추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나중에 위원장께 말씀하실 기회를 얻어서 하시는 거지요. 보시면 질문·답변 진행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의 그 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앞에 막 서사를 붙이시면요 5분도 10분도 모자랍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답변은 묻는 데에만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위원

의 질의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오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이 시선은 증인들께 가 있었지만 말하는 내용은 위원장에게 얘기한 것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났는데요.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여섯 분?

그러면 10분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계속할까요?

○**조인철 위원** 계속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혹시 꼭 자리를 떠나야 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분은 잠깐 이석했다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하여…… PPT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핸드마이크 없습니까, 과방위 행정실에? 핸드마이크 류희림 위원장께 갖다 드리시고요.

제가 방심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종면 위원님과 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후에 MBC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급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지요?

○**증인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증인 류희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이훈기 위원님 질문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8일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30여 건, 올 들어 지금까지 20여 건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전체를, 합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문제 제기하신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훈기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1분 드리세요.

○**이훈기 위원** 제가 MBC에 대해서 분명히 표적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갖고 얘기했다는 게?

○**증인 류희림** 죄송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얘기입니까?

그리고 MBC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갖고 민원 사주 MBC가 보도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PPT도 띄워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 하시고 위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증을 하셔 놓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번복하면 되는 겁니까?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위증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이훈기 위원 예.

○증인 류희림 말씀하시기 전, 위증 말씀 나오기 전에 제가 돌아와서 차으로 잘못 말한 걸 알고 정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끝나셨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류희림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류희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회에 와서 잘못된 답변 하셨는데 지금 큰소리치실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노종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1분 드리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증인 류희림 아니요,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만 얘기한 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외한 겁니다.

○노종면 위원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저기요, 선방심위는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선방심위는 어디 소속입니까?

○증인 류희림 저희하고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독립기구인데 구성 누가 했습니까? 선방심위 최종 의결 어디서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증인 류희림 전체회의에서 하지만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금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설사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갈라서 ‘위원들은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통계로는 방심위 건만 이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 건 쪽 빼고 ‘올해는 20건입니다’라고 하는 걸 궤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까, 공직자가.

그리고 지적 나오기 전에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후관계를 그렇게 어설프게 틀어 버립니까?

그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증인 류희림** 예, 노 위원님이……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기요, 류희림 위원장님. 이거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류희림 위원장님에 대해서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려고 하지 않고 또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방통위 사무처장 나와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증인 조성은** 방통위입니까, 방심위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사무총장이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구성합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독자적인 의결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그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그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예.

그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그만두셔야 합니다. 사무총장이라면서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완 질의를 해 드리는 건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독자적인 의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결을 최종적으로 선방심위가 하고 끝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하지만 그건 또 뭐니까, 그러면?

○**증인 류희림**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조금 아까 누구라고 했지요? 실무자 얘기하셨지요?

그분 나오세요. 총장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 최광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선방심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선방심위 의결로 끝납니까, 아니면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 최광호** 선방심위에서 의결하고 방통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위원장님,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홍일** 방심위의 심의 제재 요청을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하네요?

○**증인 김홍일** 제재조치 요청을 하면 제재조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재조치 명령을 하건 뭐를 하기 위해서건 의결을 하네요? 정말 참담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현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아까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마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시중 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대면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의결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서면에다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최종적으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상황에 대해서 의결하는 단위는, 행정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 중에 이러한 서면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면 대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2명의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 진술과 의견 청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면해서 의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서 위원이 구성됐을 때는 온당한 판단을 못 내린다라는 지적을 하고 위법·탈법이다라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부위원장님은 두 분이서 한 것이 다 위법한 것이 아니고 합법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 거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확인되면 세세한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18일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합니다. 그리고 선거방송 심의를 하고, 그리고 선방심위의 실무

를 담당하는 직원들 새로 뽑나요? 아니지요? 방심위에서 실무 진행 같이 해 주시지요?
그리고 최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할 때 독자적인 운영 운운하면서 심의 건수에서 선방심위 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할 때 선방심위 내용은 빼는 거지요? 이렇게 돼야지 앞뒤가 맞는 것이라고요.

위원장은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현안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2시18분)

○위원장 최민희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현안질의 시까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2024년 7월 2일 현안질의에 관련된 기관 등에 대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34건을 2024년 7월 2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분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좀 세워 주시지요. 나중에 감안해 주시거나……

○위원장 최민희 예, 8초 나중에 더 드리십시오.

○노종면 위원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리한 답변은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기 나오는 내용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 못 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증인 류희림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리한 답변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윤두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지적

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고 바로 그날부터 저런 민원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동안에 95건, 류희림 위원장하고 관련된 내용만 95건이에요. 지금 보는 저런 내용들입니다. YTN 관련 인물들도 있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한 가지 사안으로 같은, 단 2주 안에 류희림 위원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95건의 민원을 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답변할 수 없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님!

○증인 이상인 예.

○노종면 위원 저도 얼굴 좀 뵙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나오셨을 때 표정을 확인하니까 질문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도 정부위원으로서 지금 좌석과 마이크가 준비 돼 있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좀 안 보이셨지만 지금 TV 모니터로 다 잘 보고 경청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앞으로 모셨는지 질문을 하면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아니, 제가 나오는 것하고 앉아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그러면 이 자리에 제 좌석과 마이크는 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 모니터로 아까 다 보고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답답하시지요? 질문이에요. 답답하십니까? 본인의 결정과 본인의 권한 아래서 행해지는 행정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은 좀 짐작이라도 해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님의 행동은 국회법 제13조인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 이상인 저는 국회를 모욕하고……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께서 나와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도 불편함이 없지는 않지만 노종면 위원께서 이렇게까지 나와 달라고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와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이상인 아까 이훈기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아까 제가 좀 불편했지만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리에서는 김현 위원님부터 쭉 해서 야권 위원님들의 얼굴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님만 봄 수 있는데

저는 줄곧 여태까지 회의 석상에서 모니터로 쭉 위원님들 얼굴도 보고 다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굳이 저를……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 하시는지, 굳이 노종면 위원께서 마주보고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

○김현 위원 잠깐만,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현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김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이잖아요. 이상인 증인 여기서 안 보입니다. 제 얼굴만 지금 화면에, 모니터에 보이고요 이상인 위원은 여기서는 앉아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고, 증언이라 함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눈과 코와 입에서 또는 그 태도 다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이상인 위원 보입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증인 이상인 질문 답변할 때는 화면이 2개로 갈라져서 다 보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분, 지금 증인이 여기에 그냥 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오신 줄 알고 착각하는데 지금 증인이거든요. 증인 선서를 하고 오늘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그냥 일반적으로 배석자 개념은 다른데 혼동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증인으로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그리고 위원이 증언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와 달라는 주문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증인 이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증인, 이상인 증인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증인 이상인 저는 국회를 모욕한 적도 없고 위원님들 질문에 항상 다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질의는 질의하는 사람이 형식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지요. 제가 왜 앞으로 모시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안 움직이셔서 그 간단한 취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애써 이해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장소를 지정하는 이유도 아까 저도 얘기했고 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카메라와 화면 구성은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누군가 해 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의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거기 따라야 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이면 그냥 화상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세요. 왜 나오셨어요, 바쁜 시간에? 모든 걸 본인이 다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혹시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독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의도로 저 증언대로 좀 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지 왜 마음대로 재단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강력히 하신 거지요?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인 위원장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증언대에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을 다 경청했고 또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위원을, 물론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 좌석과 그다음에 마이크까지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위원님들 자리에서 또 다른 증인들도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제 얼굴을 보고 질문하시겠다면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3분 드리십시오.

○노종면 위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심위 심의 의결을 하면 방통위로 넘어와서 최종 의결을 하지요?

○증인 이상인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도 김홍일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하셨지요?

○증인 이상인

○노종면 위원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했어요?

○증인 이상인 지금 현재는 김홍일 위원장과 저와 둘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지금 하시고 있지요?

○증인 이상인 예.

○노종면 위원 지금 이런 방심위 의결과 관련된, 방심위에서 넘어오면 거의 기속돼서 의결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기된 행정소송이 16건인 건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상인 그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가운데 15건이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방통위가 이긴 게 있나요?

○증인 이상인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만 나왔고……

○노종면 위원 집행정지, 그래서 제가 결정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증인 이상인 그러니까요. 집행정지……

○노종면 위원 결정에서 이긴 게 있느냐고요?

○증인 이상인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전부 다 집행정지가 인용됐습니다.

○노종면 위원 1건도 없지요? 소송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증인 이상인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2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증인 이상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한 1억 7000 정도 되던데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방심위원장님하고 나눠서 내실 의향 없어요?

○**증인 이상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의향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이상인** 저희 방통위는……

○**노종면 위원** 낼 길이 있으면 내실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좀 미안하지 않아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15건 해서 15건 다 집니까? 국가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증인 이상인** 위원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방심위 결정에 대해서……

○**노종면 위원** 장경식 국제협력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방심위의 장경식 단장님, 얼마 전까지 팀장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단장으로는 그러면 영전하신 겁니까, 승진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승진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류 위원장님하고 미국도 함께 다녀오시고요? 지금 직함이 국제협력단장이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지금 이 자리가 매우 곤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경식 단장님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보고를 안 하셨다고 계속 그래요. 지난 9월 상황입니다.

보고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보고서를 보신 적은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봤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저기 보면 방심위원이 이해충돌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저렇게 이해충돌이 된다고, 가족이 민원 제기한 것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서 위원장께 보고드리는 게 위원장을 위해서 맞는 일 아닙니까? 보고 안 하셨어요, 확실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안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안 한 게 맞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도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심의를 하면서 민원인 정보에 대해서는……

○**노종면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보고 안 한 거 맞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증인으로 출석하셔도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노종면 위원**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아, 시간이 다 됐군요. 추가질의 기회가 또 있나요?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추가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세요.

○**이해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잠시 후의 현안질의에서 류희림 위원장께 자리에 앉아서 핸드마이크로 답을 하시라 요청을 하려던 차였습니다. 이유는 나오시면 이준석 위원님이 제 옆에 계셔서 증인석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단지 그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노종면 위원님 요청이 마치 부적절한 요청처럼 곤혹사를 하고 계시기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방심위는 이렇게 합리…… 저희 과방위는 합리적인 요청을 드릴 뿐이지 이상한 요청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인 부위원장께서는 행여 이로 인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3분 드리세요.

○**이해민 위원** 류희림 위원장님, 핸드마이크……

○**증인 류희림** 예.

○**이해민 위원** 감사합니다.

자꾸 답변을 피해 다니셔서 경찰 수사, 권익위 조사 평계 대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출장 다녀오셨지요?

○**증인 류희림** 예.

○**이해민 위원**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예산을 쓴 출장이지요?

○**증인 류희림**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당시에 만난 분 이름은 누구입니까?

○**증인 류희림** 구글 워싱턴 본부의 공공정책 부사장인 마크햄 부사장을……

○**이해민 위원**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문 의사를 밝히고 갔습니다.

○**이해민 위원** 워싱턴 본부라고 하셨습니까, 좀 전에?

○**증인 류희림** 예, 구글의 워싱턴 본부가……

○**이해민 위원** D.C Office라고 구글에서는 부릅니다.

○**증인 류희림** 예,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어젠다는 유튜브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콘텐츠였다고, 그 민원 관련된 것이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어젠다하고 맞는 곳입니까?

○증인 류희림 예.

○이해민 위원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류희림 그분이, 작년 9월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에릭슨 부사장이……

○이해민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분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증인 류희림 예, 와서 그 당시도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어젠다하고 맞지 아니한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심지어 민망한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구글 관계자 만나서 언성 높이고 책상 내리치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걸 또 자랑하셨다는 폭로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증인 류희림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해민 위원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묵하던 구글 측에서 나중에 ‘그렇지 않다’, 방심위 주장에 의하면 ‘방심위의 유튜브 관련 논의를 위해서 사전에 협의했고 콘텐츠 삭제도 약속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구글은 부인했습니다. 구글이 거짓말했습니까?

○증인 류희림 구글이 부인한 건,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요.

○이해민 위원 구글코리아에서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그런……

○이해민 위원 약속을 했다면 리튼 다큐먼트(written document)가 있나요?

○증인 류희림 그 당시 보도자료를 냈고 구글 워싱턴 본부에서도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거기서 쓰여진 문서가 있나요, 약속에 대해서?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그건 뭐 상호 존중하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겁니다.

○이해민 위원 구글은 약속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증인 류희림 지금까지도……

○이해민 위원 그리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민원을 국내에서 이상하게 하시니까 밖에 나가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800여만 원 정도 보도가 됐는데 국민 혈세로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밖에 안 되는지…… 국격 떨어뜨리고 정작 받아야 될 답은 못 받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적인 자리에 계실 거면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밖에 나가서는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원장님은 나라 망신 그만 시키시고 방송심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절대 방송 관련된 일은 다시는 맡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류희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됐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잠시 질의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 김홍일 결제를, 그러니까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수단에 의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업체가 인앱 결제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최대 30%, 매출액의 최대 30% 수수료 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지나치고 소비자들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2021년 8월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021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3월에 공표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2021년이니까 벌써 3년 정도가 지났군요.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에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해서 2023년 10월, 지난해 10월에 애플과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금액이 구글은 475억 원, 애플은 205억 원입니다. 제대로 부과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적게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가타부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위원장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조성은 사무처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당시 조성은 사무처장께서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방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반박 자료를 보내 왔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며칠 사이에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증인 조성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구글하고 애플에서 일종의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의견서를 보내 왔습니다, 소견서.

○이정현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을 말하는 겁니까? 뭐 트럭으로 몇 대 분입니까, 그걸 검토하는 데 8개월이 걸릴 정도로?

○증인 조성은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한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 끌면서 낼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시한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십니까?

○증인 조성은 제가 시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조사를 해서 과정금을 매기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 끌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 내면 그냥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인앱 결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서 외국, EU라든지 일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통위가 좀 서둘러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조성은 예.

○이정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증인 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이상인 부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 얼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하실래요?

○증인 이상인 예.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피신청 남용이 각하 사유라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러한 판단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방통위법 14조의 그 사안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척 사유가 되는 분인데 여기 결정을 하셨다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그런 입장 똑같습니까?

○증인 이상인 저희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1항 4호에 의하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해당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훈기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이 사안의 당사자잖아요.

○증인 이상인 제가 해당 사안이라 함은……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그거 그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세요? 어디 법률 검토나…… 어디서 법률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신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신 거지요?

- 증인 이상인 저와 당시 같이 의결에 참여했던 이동관 위원장이……
-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거 법률 검토 받으신 근거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증인 이상인 법률 검토 받은 바 없습니다.
- 이훈기 위원 저는 이게……
- 증인 이상인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각하하는 경우에는……
- 이훈기 위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증인 이상인 각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이훈기 위원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해 놓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법적 판단은 스스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 증인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질문입니다.
- 이훈기 위원 그 법적 검토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문제 있고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그리고 방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자료 현안 보면 4페이지에 ‘공영방송 임원 선임’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하시겠다는 거지요?
- 증인 김홍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러면 8월 12일 방문진 이사 선임이 제일 앞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절차를 시작하시지요?
- 증인 김홍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 이훈기 위원 보통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 증인 김홍일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입니까?
-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적절하다고……
- 이훈기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규정이나 내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하고?
- 증인 김홍일 그동안 해 왔던 판례가 쭉 있습니다.
- 이훈기 위원 지금 방송 3법이 진행 중인데 이 절차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홍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행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최민희 위원장님 방통위원 나오셨을 때 절차 밟아서 즉시 했습니까? 몇 개월을 끌어 갖고 스스로 사퇴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절차를 밟고 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고, 방통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기관 처음 봤어요. 제가 보기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출입기자를 오래 했는데 지금 일하는 게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책임 있으시잖아요. 방통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관계인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셔 갖고 조작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거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다 망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증인 김홍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 김홍일** 형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세요, 능력이 안 되시면.

○**증인 김홍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능력이 안 되시면 그만두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이종호 장관님, 혹시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증인 이종호** 지금 26개 있다가 이제 2개가 우주청 산하로 갔습니다. 아, 25개 있다가.....

○**조인철 위원** 25개입니까?

○**증인 이종호** 예, 25개 있다가 2개가 우주청 산하로 갔습니다.

○**조인철 위원** 공운법에서 언제 해제됐습니까? 공공기관.....

○**증인 이종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달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공운법에서 해제됐을 때하고 거기에 공운법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인 이종호** 공운법 거기에 있으면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조인철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증인 이종호** 예.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조인철 위원** 대표적으로 평가?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평가가 가장 강한 건가요?

○**증인 이종호** 아무래도 예산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인철 위원** 평가인가요, 예산인가요? 인건비 예산인가요?

○**증인 이종호** 그것 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도 중요하고요. 평가 결과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조인철 위원** 그러면 공운법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평가는 이제 안 받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국가예산이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해서.....

○**조인철 위원** 어디서 무슨 근거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공운법에 해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증인 이종호** 저희 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출연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출연연 운영 규정 부분을 가지고……

○**조인철 위원** 출연연 운영기본법 이런 게 있나요?

○**증인 이종호** 예?

○**조인철 위원** 출연연 운영기본법이 있어요?

○**증인 이종호** 성과평가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총액인건비나 이런 거는 이제 적용을 안 받습니까?

○**증인 이종호** 총액인건비…… 역시 저희가 평가를 잘하고 결국은 예산은 기재부에서 주게 되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아니,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 제도나 이런 것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다듬어서……

○**조인철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출연연구기관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굉장히 선도해 나가는, 70년대 이후 과학입국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기업의 R&D 예산들, 자금들이 전부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여파를 이 출연연구기관에서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호** 위원님의 지적 정확하시고요.

○**조인철 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려면 여기가 관리가 엄청 잘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다면 사후평가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임기 만료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 많이 계시지요?

○**증인 이종호** 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왜 임명이 안 되지요, 후속 임명이?

○**증인 이종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또 이렇게……

○**조인철 위원** 먼저 관심을 좀 가져서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연임제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하는 기관에서는 연임도 하고 그런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된 뒤로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의 이탈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학의 연구원 이탈 동향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이종호** 예, 최대한…… 저희가 이것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할 때 유진이엔티에 열 가지 조건 부여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증인 김홍일** 예. 그런데 열 가지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조건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열 가지더라고요.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한데요.

열 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단서조항이랄지 폐널티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행각서를 유진 쪽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보통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그때 가서……

○**한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2020년에 방통위가 SBS 최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꾸는 걸 승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다섯 가지, 지금 YTN 때보다는 절반인데 다섯 가지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런 문구를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행실적을—조건이지요—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조항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제재한다는 게 그게 안 지켜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전 선례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음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YTN이 2인 구성으로 돼 있는 방통위로 넘어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난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도 무력화 됐고 예전에 대량 해직 사태 때 주도했던 분이 김백 사장, 온 다음에, 보셨지요? 오자마자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행자도 갑자기 다 바꿨고,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바꾸고.

○**증인 김홍일** 방송 내용이나 이건 제가 거의 잘 안 봐서 모릅니다.

○**한민수 위원** 제가 그래서……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승인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지요. 왜냐하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당도 이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이걸 그냥 ‘방송 안 본다’ 이렇게 모른 체,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민수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이종호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종호 예.

○황정아 위원 라인 사태에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일본 자민당 정치인 아마리 의원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만나서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고 있고 라인야후는 이에 발맞춰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CPO, 신종호 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일본의 라인 강탈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의 핀테크 서비스 연동 기획·개발을 담당하고 라인페이 기능을 제공하던 라인비즈플러스는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지난 3일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서비스 된 지 10년 가까이 된 일본 국내 등록 이용자 수가 4400만이나 되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빼앗을 결심이 행동에 착수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대일 굴욕 외교와 헤어질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라인 뺏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과기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증인 이종호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맨 뒤에 질문하신 걸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네이버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뭔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대응해야 되겠지요.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시니 대통령과 정부가 라인을 일본에 상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라인 사태가 이대로 넘어간다면 타국이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 주는 최악의 선례로 남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하였습니다. 국익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에 부역한 사람들 모두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관이 나서서 이러한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종호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모 기업에서 원래 일본 정부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2차관께서 유감을 강력하게 표시를 했고 또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이 부당한 조치, 차별적 조치를 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기획조정관 좀 나오실래요? 마이크를 쓰시든가, 자리에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적절하다고 시작하는 시점에 방문진 이사 공고 내고 심사하고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기조관께서는 그 프로세스를 보고했나요? 보고됐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제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이거 일정은 기조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맞습니다. 그런데……

○**김현 위원** 그래도 보고한 건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도 최근에 자리를 옮겨서……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이든 어쨌든 간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제가 구체적인……

○**김현 위원** 업무를 인수인계해 가지고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다, 이 점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척·기피가 들어오면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사회자가 제척·기피 대상이 되고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에게 마이크를, 사회권을 넘겨서 결정을 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 제척·기피와 관련된……

○**김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척·기피가 들어오면, 사회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제척·기피 대상이 되면 사회권을 넘겨야 되잖아요, 다른 상임위원에게. 그리고 나서 그걸 의결을 해야 되지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3인 체제에서 제척·기피가 들어와서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상인 위원한테 넘기고 일대일이었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둘 다에 대한 제척·기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제척·기피 할 때는 사회권을 이상인에게 넘기고…… 의결정족수에 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에 불법·탈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명이서, 1명이 제척이 됐는데 그러면 그 결정을 1명이서 했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제척·기피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김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는데 사회는 봐야 되잖아요. 방망이는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석에, 제척·기피 대상자는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3명일 때는 2명이서 의결을 해야지만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는 건데 1명만 지금, 재석이 1명이잖아요. 1명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탈법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명이서 결정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고, 하여튼……

○김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속기록이든…… 기조관께서 지금 담당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지금은 담당 맞습니다.

○김현 위원 예, 지금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조관도 하고 기반국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시고 정책국장도 하시고 이용자 담당만 안 하고 다 돌고 돌고 돌고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온 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없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방송정책국장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가장 오래 근무한 기조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제척·기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동관 위원장의 제척을 의논할 때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방망이 두들겼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김현 위원 확인해서 다음 번 25일 전체회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7월 2일.

○김현 위원 7월 2일인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3분 넣어 주십시오.

장경식 단장님, 좀 불편하셔도 나와 주십시오.

2주 전쯤에 저희 의원실 오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위원장 모시고 미국 갔다 온 거 얘기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류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 만나 언성 높인 거 맞다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강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억양을 높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언성 높인 적 있다고 말했지요, 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높였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강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책상까지 꽂 내리친 건 아니지만 격앙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강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거 세우시고요.

트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끊어요.

얘기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좀……

○위원장 최민희 거기는 위원장님도…… 아니, 류희림 증인도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장경식 단장도 자기가 한 말 기억 못 하고 어렵니까?

그다음에 유튜브 신속 차단·삭제가 구글과 사전에 합의된 의제였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만나고 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담당이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위원장 최민희 담당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좀 부연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저는 유튜브 담당인지 묻고 있습니다. 담당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하여 취재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코리아에 직접 취재했어요. 그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구글 부사장은, 만나고 온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도 아니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다음에 방심위가 저희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 사실과 다른 게 없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제협력단장 장경식 마크햄 에릭슨 부사장은 직접적인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구글의 전체 정책이라든지 대정부, 공공기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런 각국의 규제 수준과 이렇게 좀 매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이 길어지지요.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유튜브 담당 부사장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요. 말이 길어지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님, 격앙되셨네요. 화내셨네요. 좀 아까……

○증인 류희림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에 ‘화내고 언성 높인 적 있나?’, 그런 적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격앙됐다고 말하네요.

○증인 류희림 그건 뭐……

○위원장 최민희 격앙됐는데 화는 안 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류희림 그건 옆에서 보기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말……

들어가시고요. 증인으로 7월 2일 출석하셔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은 조직이니까 말 좀 맞추고 오시든지 하시지요. 그렇다고 또 혼내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얘기한 직원에게.

3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최민희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 노종면 위원 아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작년 11월 29일에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과 또 같은 날 있었던 YTN 매각 관련된 보류 의결, 이 두 가지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혼동된 상황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훈기 위원장님의 질의는 이거였습니다. 각하를,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본인이 관여했느냐라는 걸 물었던 거라는 것, 지금이라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사소송법 2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항입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항—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나의 자격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법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의 어찌고저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걸 무슨 법리까지 끌어들여야 할 수 있는 설명입니까? 본인의 자격에 대한 기피신청은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물은 거잖아요.

본인이 각하 결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참여했는지를 소명하면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하신 거고요.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노종면 위원 예.

좌미애 과장님 와 계신가요? 연락이 되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님, 오시기는 오셨지요?

연락이 될 때까지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YTN 매각 때 방송정책국장 맞지요?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 노종면 위원 대통령실하고 통화나 만나거나 한 적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없습니다.

○ 노종면 위원 전혀 없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 노종면 위원 나중에 통화 기록 나올 수도 있어요.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 노종면 위원 지금도, 그 이후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는 전혀 소통 안 하시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뭐 다른 일로 소통할 수는 있지만 YTN과 관련된 일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 노종면 위원 매각 보류 결정이 지난해 11월 29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홍일 위원장이 오셨어요.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 노종면 위원 김홍일 위원장께 YTN 관련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신 적 있습

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노종면 위원 심사위 재가동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신 적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전체적인 그런……

○노종면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자문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노종면 위원 방송정책국장이셨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노종면 위원 YTN, 방송사를 팔아 치우는 과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절차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심사위 가동과 관련된 입장이 없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

○노종면 위원 기억 안 나세요, 할 말이 없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기억 안 납니다, 잘.

○노종면 위원 기억이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노종면 위원 김 조정관님은 2017년 방통위 노조가 뽑은 우수관리자로 선정된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 운동, 이 운동의 혁신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방통위 행복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함께 우수관리자상을 받은 간부가 있었습니다. 차 모 그분, 구속됐다가 직위해제됐지요. 그리고 지금 맡고 계신, 이 직전에 맡았던 방송정책국장, 또 다른 구속자의 자리를 맡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방송사 매각하고 공영방송 이사 갈아 치우는 역할 관여하셨습니다.

본인은 행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저는 공무원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좌미애 과장님, 방문진 이사 선임 기획안 만드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예?

○노종면 위원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만드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지금 올해 거 말씀하시는……

○노종면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아니요, 그런 바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만든 적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예.

○노종면 위원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글쎄요, 아직 그런 건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종면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아직 그거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생각도 못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예.

○노종면 위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 계획안, 절차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보면 아마 한 달 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면 7월 12일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그럴 때도 있고, 6월 달에 한 적도 있고 7월 달에 한 적도 있고 약간 경우마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하여튼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든 적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지금 현재로는 한 적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예. 제가.....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조인철 위원님.....

○김현 위원 아, 하기로 했어요?

○이훈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예,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오늘도 현안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방통위가 YTN 매각 과정도 그렇고 각종 의혹과 불법 정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현안질의 정도 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기관이 위아래도 그렇고 기관이 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

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까 제가 김영관 기조국장을 불러서 제척·기피됐을 때 그 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방송정책국장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정책국장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YTN 보도전문기관을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회의를 기반과가 하고…… 기반과가 아니라 지원과에서 하고요. 그 주무 책임자가 방송정책국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장이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기조관에게 질문을 한 건데 본인이 모른다고 한 게 사실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이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에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지금이 확인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장 최민희 지금 김현 간사 위원님 얘기 들으셨지요? 과거에 방송정책국장인데 지금 기획조정관님, 들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저기 가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제척·기피와 관련된 안건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기획조정관실의 소관 안건이었고 비공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래도 알긴 알지요. 보고를 받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아닙니다. 그때……

○위원장 최민희 방송정책국장이셨지요,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정책국장은 사실상 이런 관련 사안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정책국장이 몰랐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그 당시 그게 비공개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관실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공개 안건이 처리되면 좌미애 과장이 해당 국장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진행 정도를 알리고 그다음 처리 절차에 대해서 국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니까 지금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내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준석 위원도 얘기를 했던 게 ‘간담회 내용이 그러면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방문진 검사·감독권 발동할 때 방통위 내부 간담회를 몇 월 며칠날 했고 무슨 안건으로 했는지가 간담회 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있다는 정황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장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밖에서 모니터로 보는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내용을 다 공유합니다. 방통위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공유하는데 몰랐다, 그러면 그 뒤에 제척·기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담당하는 국장이 방송정책국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보고를 받고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후에 11월 29일 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 후의 과정을 모르고 진행했던 것도 직무유기가 되고 그리고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상임위원회의 직권남용을 방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제반의 것들이 다 탈법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방송정책국장이 몰랐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기조관은 증인은 아니지만 방송정책국장을 했던 당시의 결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이종호 장관님,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일본의 인프라는 모든 결 일본에서 가능하도록 하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증인 이종호** 제가 그 기사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게 라인야후 관련입니다. “자민당 거물, ‘라인야후는 일 인프라’ 손정의, ‘내가 책임진다”, 23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결 일본이 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지분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증인 이종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인철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요?

○**증인 이종호** 뭔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하신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거지요?

○**증인 이종호** 그걸 위원님께서는 확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일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버를 점진적으로 일본으로 옮겨 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2017년부터 서버를 옮기기 시작했고 그때 한 1만 5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1만 4000개가 이미 이동을 하고 1000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인철 위원** 서버가 반드시 일본으로 가는 게 자기들한테 좋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증인 이종호**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이걸 요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일본에서 다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아까 장관님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총무성 경제안전보장추진단장입니다. 본부장,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이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차원이 아닌 경제안보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라인야후 사태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종호** 경제안보 측면에서 일본에 다 있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일 사이에 어떤 기업이 서로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뭔가 정부가 부당하게 불법적인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면 가차 없이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 대응하겠다 이미 천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뭔가 드러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저는 너무 안일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에서 경제안보로 접근하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경제안보로 접근을 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것을 뺏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소재기업들이 한때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그 지분 구조를 바꿔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그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소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보적인 측면이고요.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분 구조를 100% 한국으로 만들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있고요. 우리 과기나 정말 외국에서 부품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명심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방통위 사무처장님!

○**증인 조성은** 예.

○**조인철 위원** 제 지난번 질의 때 심의 안건 처리를 10개월 동안 74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월평균 7.4개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을 안 하셨어요. 좀 알아보셨나요?

○**증인 조성은** 아마 그것은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증인 조성은** 자료, 답변이 나가지 않았었나요?

○**조인철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걸 제가 받은 적은 없고 그런데 본인은 파악도 안 돼 있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요?

○**증인 조성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제야?

○**노종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해야 됩니다, 답변과 관련된.

○**위원장 최민희** 끝나셨습니까?

○**조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해민 위원** 저 먼저 요청드렸는데……

○**노종면 위원** 관련된 거라 짧게 10초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 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겁니까?

먼저 하셨어요.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십시오.

○**이해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 자료 요청 사항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8월 12일에 방문진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지 깔끔하게 회의 일정 다 적어서 서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일정의 맨 앞, 시작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까지, 7월 2일이지요. 그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김홍일 위원장께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설마하니 도둑질하듯이 갑자기 시작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여기 계신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일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 보좌관 계십니까?

지금 이해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저희가 지금 34건의 자료를 의결했습니다. 거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시고 겹치는 부분 빼고, 추가되는 게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노종면 위원** 조금 전에 방통위 사무처장께서 의결 건수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실에는 자료제출하셨어요, 방통위에서. 제출할 때 보고 절차 안 거칠테니까? 그것 좀 이상해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종호 장관님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나온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라인 사태의 본질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전달하고 계신 건지, 만약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전달하고 계신 거면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게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하셨습니까?

제가 제 질의 하려고 합니다. 3분 하겠습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과 연계된 건데요, 라인 사태를 촉발한 보안사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호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이버에 있습니까? 라인에 있어서 네이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이종호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아마 서로 업무 영역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곁으로 보면……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증인 이종호 위원님, 제가 내부에서 어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물겠습니다. 그 네이버클라우드요, 일본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서 제공 받은 보안솔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제공한 보안솔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증인 이종호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 라인 사태가 정보유출 보안사고고 그래서 이걸 빌미로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압박을 일본이 했다, 이게 저희들의 인식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라인 한테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솔루션이나 그 관리 업체가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참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세등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 보안솔루션, 네이버나 라인 쪽 솔루션인 줄 알고 계셨지요?

○증인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노종면 위원님이 저런 질문을 하게 만드셨지요, 이걸 알고 계신데?

○증인 이종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짧게 하십시오. 일반적인 얘기 하면 끊겠습니다. 짧게, 내용만 하십시오.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바 엑스의 협력업체 직원의 아이디가 해커한테 넘어갔고 그 아이디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해커가 그 협력업체의 직원처럼 해서 네이버 클로바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 클로바에서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관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안솔루션을 관련시켜야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래서 보안솔루션 만들고 그걸 제공하고 이게 일본 측 기업 인데 지금도 그쪽 입장에서 설명하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증인 이종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그하세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왜 그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증인 이종호 위원님, 저희는 철저하게 네이버와 소통을 했고요. 네이버가 네이버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일반적인 얘기 안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와 소통해서 네이버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증인 이종호 당연하지요. 위원님 잘 아시는……

○위원장 최민희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인 이종호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챗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왜 저렇게 일본 정부에 우호적이지?’ 이 사태 발생 초기에도 분명히 저희가 보면 ‘일본 관계부처의 행정지도에 자본관계 변동이 들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본관계 변동이라는 말을 일본 입장에서 자꾸 재해석해 주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이종호 국민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위원장 최민희 이거 답하라고 하신 말 아닙니다.

○증인 이종호 국민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위원님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최민희 이게 정확한 거예요.

○증인 이종호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자본관계 변동’이라는 말이 행정지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만 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종호 저희가 이제……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도에, 일본 관계부처의 행정지도에 ‘자본관계 변동’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증인 이종호 ‘경영체계 재검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본관계’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강도현 차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본관계 재검토’ 있지요?

○증인 강도현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처로부터 상당한 지배력을 받는 관계의 재검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누구시지요? 어디서 말이……

○증인 이종호 여기 옆의 2차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이 틀린 말 하시니까 옆에서 보완해 주신 거지요?

‘자본관계’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강도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본적인 관계의 재검토’ 있습니다.

○증인 강도현 경영체계의 재검토 팔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민희 경영체계의 재검토, 자본적인 관계의 재검토, 이것 다 불리한 얘기잖

아요, 네이버에. 왜들 이러십니까? 이것 무슨 제2의 ‘바이든-날리면’ 사태 지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해민 위원 보좌관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노종면 위원, 박민규 위원, 이해민 위원, 이훈기 위원, 한민수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고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3시31분)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해민 위원이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해민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서면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1인)

성명	소속 및 지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 이유	비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 7. 2.(화) 14:00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성명	소속 및 지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 이유	비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정책국장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월성원전 누출사고 관련 등에 관한 질의 등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대왕고래 지질조사 관련 질의 등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질의 등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제4이동통신사 관련 질의 등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 등	추가
황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 등	추가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 등	추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명단

위원명	교섭단체
◎김 현 노종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3)
신성범 이상휘	국민의힘(2)
이해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조정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첨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

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출석 증인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이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이우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출석 참고인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유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영진	배현진		
신동욱	신성범		
정연욱	최수진		
배현진	최형두	국민의힘	2024. 6. 25.

○의안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이상 4건 6월 21일 회부됨